STX재건, 머나먼 '姜의 꿈'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제3321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5일>

코스피 2033.27 (+23.27)

코스닥 676.05 (+7.13)

금리(국고채 3년) 1.62 (−0.04)

환율(원·달러) 1127.00 (−18.00)

스마트폰 가격대전

값 내린 갤S6 "없어 못 팔아"

아이폰 6S·플러스 출시 앞두고 LG전자도 출고가 인하 '맞불'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6S와 아이폰6S 플러스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 경쟁이 불붙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아이폰 6S 시리즈의 열풍 차단을 위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 인해 신제품 구매를 미뤘던 소비자들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주 갤럭시S6의 출고가를 낮추면서 얼어붙은 휴대폰 유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15일 여의도역과 왕십리역 인근 대리점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갤럭시S6의 재고를 찾기 어려웠다.

왕십리역 인근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인해 제품 구매를 고민했던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 인하 소식을 접하고 빠르게 기기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며 "10만원 가량 가격을 낮춘 갤럭시S6의 경우 제품이 없어 판매하지 못할 정도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주 삼성전자 갤럭시S6의 출고가는 32GB의 경우 85만8000원에서 77만9900원, 64GB는 92만4000원에서 79만9700원으로 내려갔다. 갤럭시S6 엣지는 94만4900원(64GB)에서 89만8700원으로 인하됐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프리미엄 스마트폰 G4의 출고가를 82만 5000원에서 69만9600원으로 대폭 낮췄다. 여기에 국내 이동사들도 갤럭시S6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늘리고 있다. SK텔레콤은 15일 갤럭시S6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상한선인 33만원까지 인상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달 초부터 이미 지원금을 최대로 지급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6S와 아이폰6S 플러스가 본격 출시되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 인하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출고가 인하 정책으로 기존 아이폰 유저를 안드로이드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19일 아이폰6S·6S플러스 예약판매에 들어간 후 23일부터 정식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출고가는 아이폰6S 기준으로 92만원(16GB),106만원(64GB),120만원(128GB)으로 기존 아이폰6보다 10만원 가량 높다.

/양성운 기자 ysw@

아이폰6s(왼쪽)와 아이폰6s플러스 갤럭시S6

중국 국경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명동이 평일에도 불구하고 쇼핑 나온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명동 찍고 메트로로 서울시내 누비는 중국인

건대·강남 '유커특구'

'한국지하철앱' 빅데이터 조사
세련·젊음… 유커 성향 변해
건대입구·이태원 등 급부상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즐겨 찾은 장소가 전통적 상권인 '명동'에서 건대입구와 강남역, 이태원 등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기획의 중국 디지털 마케팅 자회사 펑타이(鹏泰·PENGTAI)는 15일 국경절 연휴가 포함된 열흘 간(9월 28일~10월 7일) '한국지하철' 앱에서 검색된 약 14만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명동역의 검색 비중은 18%로 가장 높게 나왔다. 홍대입구역(12%), 동대문역(6%), 서울역(5.7%), 인천국제공항역(5.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눈여겨 볼만한 점은 전통적인 상권 외에 전년대비 순위가 급상승한 역이다. 건대입구역(14위, 33계단 상승), 강남역(12위, 19계단 상승), 이태원역(18위, 10계단 상승)이 급격히 부상했다. 건대입구역은 올해 역 인근에 문을 연 대규모 컨테이너 쇼핑몰 '커먼그라운드'가 새로운 쇼핑 코스로 인기를 얻으면서 유커의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역은 쇼핑 장소, 맛집 등과 더불어 성형외과가 밀집된 지역으로 긴 연휴를 이용해 성형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유커가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태원역은 국내에서 방영되는 요리 프로그램이 중국에서도 인기 콘텐츠로 부상하면서 '쿡방'에 출연하는 유명 쉐프들의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이태원역을 방문하는 유커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건대입구를 자주 찾는다는 북경에서 온 왕평평씨는 "건대입구가 대학가라서 값 싸고 오밀조밀한 맛집도 많고 패션을 선도하는 롯데백화점, 스타시티 등 쇼핑몰이 등이 있어 건대입구가 좋다"고 말했다.

상해에서 온 이계풍씨는 "이태원역은 최근 한국 인기 쉐프들의 식당을 직접 방문해 맛볼 수 있다는 즐거움에 찾게 됐다"며 "이 외에도 한국의 클럽문화도 중국 젊은 이들 사이에서 호기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작년 같은 기간의 데이터와 비교해 볼 때, 명동역과 홍대입구역은 외국인 관광 명소답게 1, 2위를 유지했다. 동대문역과 서울역도 5위권을 지켰다. 다소 변화는 인천국제공항역이 이대역, 신촌역 등을 제치고 5위에 올라갔다는 점이다. 인천국제공항역에 대한 검색 건수 증가는 관광버스를 이용해 공항으로 이동하는 단체여행객과 달리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항으로 이동하는 자유 여행객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지하철' 앱은 유커용 한국 지하철 지도 서비스로 현재 전국 지하철 노선안내와 노선별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5월에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가 70만 건이 넘으며 2014년 중국 안드로이드 마켓 최우수 앱에 선정된 바 있다. 펑타이는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유커 중 자유여행객 비중이 약 58%를 차지하는 등 최근 중국인들의 개별 자유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자유여행 유커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앱 검색 데이터를 분석, 발표했다.

남용식 펑타이 대표는 "중국인 자유 여행객의 증가, 중국인 스마트기기 보급율 증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방문 유커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서 자유 여행객에 초점을 맞춘 모바일 마케팅이 중요해졌다"며 "펑타이는 현재 운영 중인 한국지하철 앱에 비해, 쿠폰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유커 방문이 늘고 있는 싱가폴, 일본 등에도 지하철 앱을 출시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펑타이가 만든 '한국지하철' 앱은 유커용 한국 지하철 지도 서비스로 현재 전국 지하철 노선 안내 및 노선별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펑타이는 '한국지하철' 앱의 월별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한달 평균 30만 건을 웃돌던 역 검색량이 메르스의 영향으로 6월과 7월에는 17만 건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지난 8월에는 30만 건을, 9월에는 40 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관광객 수가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커 관련 마케팅이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기자 fun@metroseoul.co.kr

Korea University “Scholarships for outstanding students will be abolished and we will provide benefits to the students who are in low-income group”

고려대 “성적장학금 폐지, 저소득층에 혜택 초점”

Korea Univ. presented a reorganization plan on scholarship that focuses on the students who are in financial difficulties abolishing the scholarship for outstanding students at the same time from next semester.

This plan tries to focus on providing a scholarship to the students who are having a difficulty of studying due to their current economic status rather than providing it to the students for their outstanding performance.

Nonetheless,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whether the abolition of scholarship for outstanding students is a preferable option or not since it could result in reduced motivation for students.

Yum Jae-ho, the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said in a press conference at 2pm on the 14th that “Moving away from the system that provides financial supports to the students with outstanding grades we plan to prevent the situations where students who decide to drop out or spend less time on studying because of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from happening.”

Korea Univ. named its scholarship system the “freedom, justice and truth scholarship system.” 3.5 billion won was allocated to the freedom scholarship that supports students' activities and the students who are in financial difficulties. The justice scholarship that 20 billion won is allocated to is provided to the students who are suffering from financial difficulties so that they would not have to decide to drop out or spend less time on studying.

고려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내년 1학기부터 성적장학금을 없애는 한편 가계 곤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장학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각종 형편 때문에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적장학금 폐지가 '학업 동기부여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14일 오후 2시 고려대 본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부를 잘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체제에서 벗어나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학업에 소홀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장학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번에 새로운 장학제도를 '자유·정의·진리 장학제도'로 명명했다. 자유장학금은 학생자치활동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으로, 35억원이 배정됐다. 200억원이 편성된 정의장학금은 경제적 문제가 학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베이지북**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국 경기둔화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 독일 시사 주간 **슈피겔**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적어도 30명의 간부들이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 **북한**이 신포 남부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수직발사관 시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군사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정치·사회

▲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의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에 세일즈 외교 말고도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도 불식시켜야 한다.

▲ 지난 대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이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강의원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가시질 않자 “일본이든 한국이든 (거류민) 3만7000명의 신변이 위태롭다면 같이 공조해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고 거듭 해명에 나섰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원칙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조선과 해운을 비롯한 구조적 불황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혔다.

▲ 2017년학년도부터 국정으로 전환되는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김정배 위원장·국편)가 내부적으로 집필진 구성 작업에 착수했지만 사학계의 집필 거부가 확산되고 있어 집필진 꾸리기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쳤다.

▲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급식 회계 부정이 적발된 **충암중·고등학교**가 시교육청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재양성 반응으로 격리된 80번(35) 환자가 격리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 박람회 1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박람회장 입장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6S와 아이폰6S 플러스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 경쟁이 불붙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아이폰 6S 시리즈의 열풍 차단을 위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이다.

▲ 삼성전자의 액티브워시·버블샷 애드워시와 LG전자의 트롬 트윈워시가 **신개념 세탁기**로서 시장구도를 바꾸고 있다. 주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세탁기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액티브워시는 출시 9개월 만에 글로벌 판매 100만대를 넘겼다. 버블샷 애드워시는 지난달 출시 후 6주 만에 1만대가 넘게 팔려 나갔다.

▲ 횡령·배임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그룹 재건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14일 석방 직후 와해된 STX그룹의 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낮췄다. 또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 전날 강덕수(65) 전 STX그룹 회장 석방 소식에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선 **STX 계열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회사원 출신으로 STX그룹을 창업, 그룹을 재계 순위 13위까지 끌어올려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그가 그룹을 재건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 **KB금융**이 대우증권 인수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KB금융은 계열사 인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우증권 인수 TF 구성을 다음주까지 완료하고 인수 적정가격 산정과 기업가치 평가 작업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 **롯데물산**은 롯데월드몰 개장 1주년을 맞아 1년간 15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유치하는 등 282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 평균 5000명 이상, 1년간 200만명 가량이 찾았다. 이 중 유커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른다.

석방 강덕수 그룹복원 외치지만…

STX재건, 아직은 머나먼 '姜의 꿈'

팬오션 하림그룹, 에너지는 GS가 인수
조선 등은 채권단 관리… 그룹재건 쉽지 않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그룹 재건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석방 직후 와해된 STX그룹의 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15일 업계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샐러리맨으로 시작해 STX그룹을 세운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다. 강 전 회장은 지난 1973년 쌍용양회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28년 만에 사재 20억 원을 투자해 2001년 쌍용중공업을 인수했고 이를 모태로 STX그룹을 키워낸 입지전적 인물이다. STX그룹은 한때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주요 계열사만 12개로 꾸려진 재계 순위 13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대부분의 재계 총수들이 부친의 회사를 이어받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이라는 수식어 속에서 강 전 회장의 신화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으로 비춰졌다.이날 오랜만에 만난 강 전 회장의 모습이 매우 반가웠다는 댓글이 적지 않았다.

조선과 중공업 업체를 사들여 엔진·조선·해운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했고 해외에서도 거침없는 인수합병을 단행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악화가 닥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던 수직계열화는 직격탄을 맞았다.

물동량이 급감한 해운이 침체되자 조선과 중공업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한 STX그룹은 해체됐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2013년 이후 주요 계열사들은 법정관리, 채권단 공동 관리, 매각 절차에 들어가며 공중 분해됐다.

주력계열사인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 STX엔진은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다.

법정관리를 마친 STX팬오션은 하림그룹에 인수됐다. STX에너지는 GS그룹에 넘어갔다.

강 전 회장을 지지하는 STX맨들은 강 전 회장의 2심 재판부에 탄원서 1877통을 내고 구명활동에 나섰다.

강 전 회장의 석방과 함께 그룹 주축으로 다시 그룹을 일으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구속된지 1년여 만에 풀려난 강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법원을 나왔으며 수십 명의 지지자들의 환대를 받았다. 강 전 회장은 취재진 앞에 서서 "국민들께 심려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업을 하다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전 회장과 STX맨들이 그룹을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항소심 판결 후 검찰은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재판부 판단에 모순이 있다며 즉각 상고할 방침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STX그룹주는 강 전 회장의 석방과 함께 강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장마감 기준 STX엔진은 전일 대비 5.04% 오른 9800원을 기록했다. STX중공업은 전날보다 2.44% 오른 7140원에 거래를 마쳤다. STX는 장중 강세를 보인 뒤 0.55% 하락한 4495원에 마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최경환 "인터넷 은행, 은산 분리 완화 필요"

엄격해지면 핀테크 '장애'
"금산 분리도 맞지 않아"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원칙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조선과 해운을 비롯한 구조적 불황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가입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국회 논의가 필요한 노동개혁이나 재벌개혁 문제는 국정교과서와 대선 개표조작 발언 논란에 묻혀 정체 상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얼마나 완화할 지에 대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지금처럼 엄격한 은산 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 육성 측면에서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가 개수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신청받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2~3개 정도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발목 잡는 금산분리 원칙도 과거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지금 같은 자금잉여 시대에는 맞지 않다"며 정부의 방침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IT는 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부처가 연관된 문제다. 정부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회의만 하다 시간을 낭비하고 볼일 다 보게 된다"고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최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구조적인 불황을 겪는 업종이 다수 있다. 조선과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이 공급 과잉이면서 상시적인 불황 업종"이라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나 제도, 절차 간소화 등의 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FTA에 대해서는 "(내년에 발의될 경우)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치는 놓치게 된다. 조속히 발효돼서 올해 향유할 수 있는 관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렵게 타결된 협정을 재협상하다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국회) 비준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 균형을 충분히 고려한 협상이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하에 협의를 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TPP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한중 FTA는 타결된대로 발효를 해야하고 TPP는 TPP대로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과거보다 늘어난 속도가 빨라진 것은 인정하고 송구스럽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법인세 요구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면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하고 오히려 재정건전성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도록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 대통령 '틈새공략'… 시진핑은 '통 큰 유혹'

한·중 정상의 방미 외교행보 비교

美 기업인 만난 朴 대통령 "약점 보완해 주겠다" 설득 '제조업 신르네상스' 제안

우주분야 협력강화 모색도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는 이제 해외 순방의 공식이 됐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에 기울고 있지 않느냐'는 미국 정가의 못마땅한 시선을 바로 돌려놔야 한다. 그 와중에 세일즈의 성과 또한 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일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오버랩된다. 시 주석 역시 미국 재계에 중국 시장의 건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했고, 해킹 문제 등을 둘러싼 백악관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했다.

두 지도자는 세일즈 외교부터 시동을 거는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방식은 달랐다. 시 주석이 거대시장을 무기로 활용했다면 박 대통령은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틈새전략을 활용했다.

시 주석은 당시 첫 방문지로 시애틀을 택했다. 의도는 곧 드러났다. 시 주석은 시애틀에 위치한 보잉에 버렛 공장을 방문해 '통 큰 선물'을 내놨다. 737항공기 250대를 포함해 300대의 항공기를 주문한 것이다. 또 보잉에 중국 공장을 세워달라고 했다. 모두 380억 달러(약 43조원)에 이르는, 보잉으로서는 완전 대박인 계약이다.

시 주석은 시애틀에 미국의 거물급 IT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놓고 중국의 거대시장을 더욱 활짝 열겠다고 유혹했다. 증시 폭락 사태로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시선에는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안심시켰다.

거대시장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대신 한국이 미국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도착 당일인 1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미국 기업인들에게 한국과 함께 '제조업 신르네상스'를 열어가자고 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메이킹 인 아메리카'와 '제조업 혁신 3.0'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제조업에서 신성장 동력과 경제혁신의 모멘텀을 찾고 있다"며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인 양국이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혁신을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제조업 신르네상스'의 문도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 NASA 고다드 우주센터 위성로봇연구동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스마트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다. 박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의 만남은 전통 제조업을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미래 제조업 혁명을 가져올 기술로 언급한 3D 프린팅은 아이디어가 시제품으로 구현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제3의 산업혁명을 앞당기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첨단 센서로 측정한 소비자 정보가 공장으로 실시간 전달되고, 주문자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서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도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동부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워싱턴의 기업가들에게는 달콤하게 들릴만한 이야기다.

티몬스 전미제조업협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우리가 새로운 경제재도약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미국의 제조업은 한국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수많은 산을 건너 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지는 상담회에는 우리기업 67개사(경제사절단 57개사, 개별참석 10개사)와 미국측 바이어 90개사가 참석해 IT, 정보보안, 보건의료, 바이오, 방산조달,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 위주로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첨단산업인 우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일단 세일즈 외교의 문을 연 박 대통령은 15일에는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한다. 여기서는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대선 개표조작 발언' 강동원, 새정치서도 찬밥

당 내서 사과 요구 목소리

지난 대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이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될 말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라면 개표 부정이나 대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야당 의원은 그런 소리를 하면 안된다. 시쳇말로 찌질해 보인다. 강 의원은 당사자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사과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문정림 원내 대변인이 1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의원은 "민주화는 옳았고, 산업화는 틀렸다거나, 산업화는 옳았으나 민주화는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서로 인정하고 화해·공존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호남에서 대통령이 다시 나와 민주화 세력의 역사만 인정하자고 하면 저부터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강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강 의원을 당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대표가 직접 "상식에 맞지 않는 의혹 제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당의 역사교과서 투쟁에 차질을 빚어 미안하다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한 징계안에서 "강 의원의 발언은 전·현직 대통령 및 정부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제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이 악용돼서는 안된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것 역시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병형 기자

황교안 "자위대 입국 허용" 일파만파

"신변위협 전제" 해명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가시질 않자 "일본이든 한국이든 (거류민) 3만7000명의 신변이 위태롭다면 같이 공조해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고 거듭 해명에 나섰다.

황 총리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앞부분 전제(자국 거류민의 신변 위협)는 떼고, 제가 마치 자위대의 (한국) 입국을 허용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왜 제가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하겠느냐. 한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의 전날 자위대 관련 발언 직후 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의 유력언론들은 우파니 좌파니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총리가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허용했다'는 취지로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일본 신문의 잘못된 내용을 믿겠느냐, 제가 국회 속기록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을 믿겠느냐"고 호소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황 총리의 발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21세기 친일 극우파의 커밍아웃' 선언이다. 반민족적 망언이자 역사의 시계바늘을 1945년 8월15일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내용이 담겼다.

새정치연합은 황 총리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해 현재 일본과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송병형 기자

한은 "올 성장률 2.7%… 수출 부진이 발목"

선진국 중심 회복세 전망
美 통화정책따라 변동성 ↑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낮췄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3%대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12면>

또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로 동결한 후 배포한 '2015~2016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예상했다. 지난 7월 전망했던 것보다는 1%p씩 낮아진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 2분기 경제성장률을 0.4%로 예상했는데 0.3%로 나왔다"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가 컸기 때문이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과는 동일하지만, 국내 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2.6%), 한국경제연구원(2.4%) 등에 비해서는 높다. 정부가 내다보는 3.1%보다는 0.4%p 낮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2%로 0.1%포인트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에 따르면 메르스사태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내수가 올라가는 것과 수출이 내려가는 것을 감안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 기여도는 내수 2.5%, 수출 0.2%로 추정되고, 내년에는 내수 2.3%, 수출 0.9%로 예측됐다.

내년에는 성장률 3%대 달성이 가능하겠지만 대외리스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이 총재는 내년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 미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원자재 가격변동을 지목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1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원유 등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30억 달러로 전망됐다.

한은은 또 금통위 함께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세계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 경제에 대해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 움직임을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지난 9월과 달리 대외불안요인에 대한 언급에서 '중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은 삭제됐다.

다음은 한은이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의 오름세 둔화, 석유류가격 하락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6%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1%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금융·외환시장 불안 진정,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기 지연 기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하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폴크스바겐 조작에 최소 30명 연루"

신차서도 조작 시도 정황
美 EPA서 조사 착수

독일 시사 주간 슈피겔이 14일(이하 현지시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적어도 30명의 간부들이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최근 폴크스바겐의 미국 법인 대표가 미국 의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두 명의 개인 소행일 뿐 회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폴크스바겐에서는 슈피겔 보도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슈피겔은 로펌회사인 '존스 데이'와 폴크스바겐의 자체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연루된 간부들이 직무를 정지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연루된 사람들이나 조작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 그룹의 마이클 혼 미국 대표가 8일(현지시간)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산하 감독조사소위의 '폴크스바겐 청문회'에 출석해 "제가 아는 한 이번 사태는 회사 차원의 결정이 아니며 몇몇 개인들의 소행"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폴크스바겐의 새로운 최고경영자(CEO)인 마티아스 뮬러는 15일 현재까지의 조사 상황과 향후 전략적 대응 방안을 최고경영진들에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폴크스바겐의 조작 스캔들은 새로운 의혹이 불어나면서 확대 일로에 있다. 이날도 폴크스바겐이 2016년형 디젤 신차에서도 배기가스 조작 시도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6년형 디젤 모델에 장착된 배기가스 조절 소프트웨어를 분석 중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종전 배출가스 조작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소프트웨어를 두고 EPA는 시험주행 때에만 배기가스를 정화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EPA 조사 착수와 동시에 미국 내 폴크스바겐 디젤 신차는 판매가 중단됐고, 독일에서 미국에 보내진 차량은 항구에서 발이 묶였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폴크스바겐의 신뢰도는 회복 불능의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모델에 대해 규제 당국이 압박을 가하는 와중에 새로운 조작에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

"연내 美 금리인상 물 건너가"

달러 강세로 미국 경기둔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베이지북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국 경기둔화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연준이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10월 베이지북(경기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일부 지역의 제조업과 관광업 경기가 악화됐다.

연준이 조사한 12개 지역 가운데 리치몬드와 시카고 지역에서는 경기 둔화가 보고됐고 캔자스에서는 경제 활동성이 소폭 감소했다. 9월 베이지북에서는 12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경제성장이 나타났다. 경기 둔화가 나타난 지역이 2곳 더 늘어난 것이다. 또 10월에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은 저유가와 달러화 강세였다. 여러 지역에서 저유가가 에너지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보고가 나왔다. 뉴욕, 미니애폴리스, 댈러스등은 달러화 강세가 관광산업에 타격을 가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뉴욕의 경우 브로드웨이의 극장 수입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해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소매점도 영향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중국발 영향은 중국의 성장 둔화가 아닌 위안화 평가절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는 동안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화로 경기부양책을 폈기 때문이다. 베이지북이 진단한 시기는 중국의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가 단행된 시기와 겹친다.

베이지북은 오는 27~2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자료로 쓰인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CNBC에 따르면 첫 금리인상 시기를 내년 4월로 보는 투자자들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병형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 집 국 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국정교과서 균형있는 집필진 꾸리기 난항

고대·경희대 등 교수들 참여 거부 발표 잇따라

교육부, 명단공개 고심

2017년학년도부터 국정으로 전환되는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김정배 위원장·국편)가 내부적으로 집필진 구성 작업에 착수했지만 사학계의 집필 거부가 확산되고 있어 집필진 꾸리기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쳤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편은 국정교과서 집필진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정해 학회와 연구소, 대학 등에 초빙 공모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발표하던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내락을 받은 분(집필진)들이 많이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 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집필진 구성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아울러 내달 5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이 고시될 경우 집필진 공개모집도 공고할 방침이다. 국정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로 구분돼 집필진 구성을 나눌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7년 국정 전환을 앞두고 새로운 집필 기준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고 굳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현재 국편에는 역사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관·연구사 44명이 있다. 이들 중 8명은 중·고교 두 팀에 각각 4명이 투입돼 집필 원고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학계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집필 거부가 확대돼 '올바른 교과서' 집필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바른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의 새 이름이다. 정부가 국정 전환을 밝히면서 노장청과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우려를 일축했지만 집필 거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구상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고려대 사학과·한국사학과·역사교육과·고고미술사학과 교수 22명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역사교육을 퇴행시키고 교육과 민주헌정질서의 가치를 뒤흔드는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향후 진행될 국정 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연구 개발과 집필, 수정, 검토를 비롯한 그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집필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62명도 성명을 내고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과 한국교원대 교수 등도 국정화를 반대하며 집필 참여에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날인 13일에는 연세대 사학과 교수 13명이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제의가 오리라 생각지도 않지만, 향후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처신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까지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들도 국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잇단 집필 거부로 균형 있는 집필진 구성에 난항을 겪게 된 교육부는 집필진 명단 공개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집필진이 확정되면 명단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집필에 참여한 사학자들이 신상털이식 검증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필진 구성부터 난항에 빠진 교육부가 이를 극복하고 1년 안에 균형 있는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靑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선고

박관천은 징역 7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경정 역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정윤회 문건'을 자신의 판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용서류 은닉, 뇌물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박 전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연미란 기자

'급식비리' 충암고, 시교육청 고소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급식 회계 부정이 적발된 충암중·고등학교가 시교육청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학교법인 충암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충암중·고 급식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교육청 김형남 감사관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암학원은 14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학교가 용역근무일지를 조작하거나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해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해 횡령했다고 교육청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올 5월부터 충암중·고교의 급식 운영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벌여 급식 관련 예산 4억1000여만원이 빼돌려진 정황을 확인하고 충암고 전 교장 P씨와 행정실장 L씨 등 18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상태다.

/연미란 기자

'구직 인파'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5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행사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 폐지 전 확정된 보호감호 집행 '합헌'

"범죄자 일시 방출시 위험"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에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이를 그대로 집행한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사회보호법 부칙 2조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강력범죄자는 형을 마친 뒤에도 보호감호를 받도록 한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 당시 이미 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을 계속한다는 경과규정을 부칙 2조에 남겨뒀다. 다만 보호감호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행사하도록 정했다.

헌재는 적지않은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에 보호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대로 집행하도록 한 게 이중처벌이나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보호감호자 다수가 강도상해나 성폭력 범죄자이며,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률이 대폭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한꺼번에 사회에 나오면 위험이 없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보호감호 관리와 집행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맡긴 것도 입법재량 범위에 있는 것으로,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등을 낼 수 있는 만큼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피보호감호자는 103명이다.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된 사람은 75명이었다. 이들 178명에 대한 집행이 모두 종료되면 보호감호제는 실제 현장에서도 사라지게되는 셈이다.

앞서 강도상해죄로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김모씨와 특수강도강간죄로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강모씨 등은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는데도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미란 기자

세븐에이트
동성제약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전, 오늘 세븐에이트 해요"
세븐에이트 전속모델 I 탤런트 차 화 연
편하고 부담없이 자연스러운 느낌 – 세븐에이트
새치커버는 물론 스타일리시한 헤어컬러까지~ 최신 트렌드에 맞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
4호 (자연스런 밤색) 5호 (진한밤색) 6호 (자연스런 갈색) 7호 (자연스런 흑갈색)
스타일에 따라 용도에 맞게 골라 쓰세요
I 세븐에이트 헤어 마스카라 I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I 세븐에이트 편한염색
I 세븐에이트 실키 칼라크림 I 세븐에이트 쉬운염색 I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 스프레이
I 소비자상담실 I 080-547-3571 I 세븐에이트는 가까운 약국,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가 뷰티에 진출하는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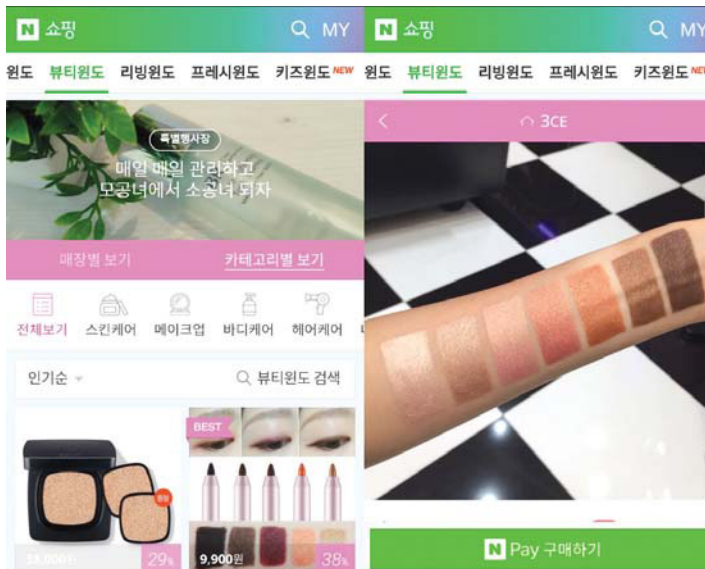
O2O 대표수익 모델 낙점

카카오, 하시스 지분 인수 내년 뷰티관련서비스 출시

네이버 '뷰티윈도' 급성장 제품소개·후기 플랫폼 인기

국내 포털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O2O(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사업을 통한 수익 모델 창출에 고심하는 가운데 뷰티(미용) 사업에 방점을 찍어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투자전문 계열사 케이벤처그룹은 미용실, 네일샵 등 뷰티업계 고객관리 솔루션 1위 업체인 하시스의 지분 51%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1호 O2O 사업인 카카오택시로 경쟁력을 입증해 보인 카카오는 이번 하시스 인수를 통해 뷰티 관련 O2O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지환 케이벤처그룹 대표는 "7조원 규모의 뷰티 시장에서 관련 O2O 서비스를 선보여 모바일 혁신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하시스의 시장 선도적인 위치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 폭 넓은 오프라인 네트워크 등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찾았다"며 "이는 카카오가 추구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자로의 변모' 계획과 일맥상통해 서로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미용 뷰티시장에 진출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네이버 뷰티 윈도.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하시스의 고객관리 솔루션과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연동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시장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이라 전망했다.

네이버도 뷰티 제품 사진과 사용팁은 물론, 구매까지 손쉽게 이어지도록 하는 O2O 플랫폼인 뷰티윈도가 시장에 나온 지 1개월 만에 대폭 성장해 주목받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선보인 뷰티윈도가 서비스 시작 이전보다 상품 거래액이 3배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백화점 매장에 입점해 있었던 뷰티 매장들과 인기 로드샵 브랜드를 추가해 뷰티윈도를 선보였다. 기존에 검증된 오프라인 매장의 인기 상품 외에도 삐아의 '라스트 립스틱', 시크릿키의 '패스트 샴푸', 아멜리의 '아멜리 섀도' 등 온라인 전용 브랜드의 제품도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끌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뷰티윈도의 인기 비결은 샵 매니저가 직접 인기 제품을 활용한 메이크업 동영상, 발색샷, 솔직한 이용후기 등을 올리며 이용자의 구매 결정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뷰티윈도의 경우 이용자 80%가 여성인 네이버 모바일홈 패션뷰티판과도 긴밀히 연계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서비스 총괄이사는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해 뷰티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뷰티윈도는 신상품 소개, 후기, 구매 과정까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뷰티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포털 업체들이 O2O 사업에서 뷰티 부문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비성향이 강한 분야기 때문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뷰티 콘텐츠는 입소문 마케팅이 가장 잘 통하는 분야 중 하나이며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여성들이 모바일상에 집중돼 있어 타깃팅이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SK텔레콤 모델들이 스마트로봇 알버트를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산업부·SKT, 코스타리카에 교육용 로봇 보급

스마트로봇 '알버트' 1년간 1500대 보낼 것

SK텔레콤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해 코스타리카 교육용 로봇 보급사업에 진출한다.

SK텔레콤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IDB 본부에서 코스타리카 교육용 로봇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앞으로 약 1년에 걸쳐 코스타리카의 300여개 학급, 6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로봇 '알버트' 1500대를 보급해 수학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사업 파트너인 IDB는 알버트를 활용해 수학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며, 코스타리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는 IDB가 150만달러, SK텔레콤과 산업부가 로봇 현물 지원 등으로 75만달러, 코스타리카 정부가 15만달러를 지원해 총 240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 사업은 중남미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한국 지능형 로봇을 해외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IDB 내부에서도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2012년 12월 스마트로봇 알버트를 처음 선보였으며 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인 '코딩스쿨'을 개발해 중국, 대만, 스페인, 프랑스 등에 수출한 바 있다.

/정문경 기자

'흰지팡이'에 담긴 금호석화의 장애인 사랑

8년째 시각장애인 지원 올해도 1650명에 혜택

금호석유화학은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서울시 강동구 소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제작후원금 5400만원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원금으로 총 1650개의 흰지팡이를 제작해 시각장애인 개인·유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흰지팡이는 9단 안테나형(최단 25㎝, 최장 138㎝)으로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왼쪽)이 이상재 하트 체임버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장에게 흰지팡이를 전달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은 2008년부터 8년째 매년 흰지팡이의 날에 제작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yonggi@

SK그룹 '청년 비상' 프로젝트 본격 가동

청년 기업가 양성 돌입

SK그룹이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SK 청년 비상(飛上)'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학교를 모집하면서 청년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SK는 15일 "'SK 청년 비상' 프로젝트를 운영할 대학의 지원자격과 지원 사항 등을 알리는 모집 공고를 16일 발표하면서 청년 기업가 양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과 세종 등 충청 지역 및 울산에 소재한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최종 25개 대학을 선발한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11월18일까지 진행하며 선발 결과는 11월30일 발표한다. 이달 22일에는 청년 비상 프로젝트 설명회가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다.

'청년 비상'은 대학과 기업이 대학생에게 창업교육과 창업 인큐베이팅을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다. 대학은 창업교육과 창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한다. SK는 창업 아이템을 고도화시켜 실제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SK관계자는 "기업과 대학이 창업교육과 인큐베이팅을 연계해 창업을 활성화는 하는 국내 첫 산학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시작 전부터 많은 대학이 창업교육 내용과 운영 방향을 문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SK는 선발 대학에 2년간 6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창업 인프라 구축, 창업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창업지원금 등에 사용된다.

'청년 비상' 프로젝트는 3단계로 운영된다. ▲대학에서의 창업교육과 창업아이템 발굴 ▲SK그룹 등 전문가 인큐베이팅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순서다.

/조한진 기자 hjc@

이젠 소통이다! 현대차 경영진 고객 곁으로

'마음 드림' 이벤트 개최
권문식 부회장·김충호 사장 고객과 소통 간담 릴레이

ABOUT HYUNDAI
현대자동차 공식 블로그
About Hyundai | Car H | Life H | Fun H | Talk H
[Talk H/오해와 진실]에 해당하는 글 6건
[현대차가 말한다]"현대차 에어백은 잘 안 터진다?" (68)
2015.10.02
[현대차가 말한다] "현대자동차는 수출용 차량에 더 좋은 에어백을 사용한다?"…
2015.08.04

고객과 소통 하기위해 운영 중인 현대차 공식블로그의 '오해와 진실' 코너. /현대차 공식블로그

현대자동차가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과 고객간담회·남양연구소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해 '마음 DREAM' 행사를 개최한다.

15일 현대차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대차는 21일까지 '마음 DREAM'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현대차 측은 "27일 열리는 이 행사는 현대차가 최근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경영진 소통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국내영업본부에 커뮤니케이션팀을 신설해 고객 소통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커뮤니케이션팀을 통해 현대·기아차에 대한 품질문제, 소비자불만 등을 보고받고 있다. 8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미국용 쏘나타와 내수용 쏘나타의 충돌테스트를 진행했다. 9월에는 고객들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남양연구소로 초청해 신형 아반떼 충돌 테스트도 시연했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각 부문 최고 경영진이 참가하는 행사를 순차적으로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고객들은 먼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충돌시험장, 주행시험장, 품질확보동을 둘러보며 현대차의 노력과 첨단 기술력을 체험한다.

그 후 K호텔로 이동해 만찬을 하며 현대차 경영진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27일 경영진 간담회에는 김충호 현대차 사장이 참석한다.

김 사장은 국내 최대 자동차기업으로서 현대차의 사회적 책임감과 함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고객들이 평상시에 현대차에 대해 가진 궁금증에 대해 답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지난 4월 서울모터쇼를 비롯해 공개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자세를 낮추고 고객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www.hyundai.com) 이벤트 메뉴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22일 발표된다.

현대차는 권문식 연구개발본부 부회장, 곽진 국내영업본부 부사장,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총괄 사장 등 각 부문의 대표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 부회장은 동호회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기술·편의성, 곽 부사장은 안티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대차에 대한 부정이슈, 슈라이어 사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대차 디자인에 대한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삼성전자 모델들이 다양한 삼성전자 TV 판촉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TV, 주간 최고 판매 기록

블랙프라이데이 등 영향 전월 주 평균比 약 40%이상↑

삼성전자 TV가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가을 혼수·이사 시즌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 TV는 'TV 슈퍼 위크' 프로모션이 시작된 10월 첫 주말부터 판매가 크게 늘면서 1일부터 14일까지의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전월 주 평균 대비 약 40% 이상 증가하며 올해 한 주간 판매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소비자들이 집중적으로 방문한 백화점과 할인점의 TV 판매도 급증하며 전월 대비 2배 가량 늘어났다.

삼성전자 측은 "'TV 슈퍼 위크' 행사와 함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동참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풀HD TV 제품 할인 행사를 추가로 진행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판매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10월 한 달간 진행되는 삼성전자 'TV 슈퍼 위크' 행사는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 TV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하 금액의 최대 2배 상당의 포인트나 캐시백을, 개별 소비세 인하 대상이 아닌 행사 모델을 구매해도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나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브랜드나 제조일자 등에 상관없이 구형 브라운관·LCD·PDP·LED·프로젝션 TV 등을 반납하면 최대 20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V 보상판매 프로모션도 10월 말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 TV 보상판매 프로모션은 다른 행사와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조한진 기자

주부 마음 읽은 신개념 세탁기 '불티'

삼성, 액티브워시·버블샷 애드워시 LG, 트롬 트윈워시 판매 '돌풍'

액티브워시

버블샷 애드워시

트롬 트윈워시

삼성·LG전자의 신개념 세탁기가 시장구도를 바꾸고 있다. 주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세탁기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며 제조사들은 환하게 웃음짓고 있다.

15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개념 세탁기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삼성전자의 '액티브워시' 세탁기는 메가히트 조짐이다. 세탁조 커버 '빌트인 싱크'와 전용 급수 시스템인 '워터젯'을 적용해 애벌빨래부터 본 세탁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액티브워시는 지금까지 판매된 삼성전자 세탁기 중 가장 빠른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출시 9개월 만에 글로벌 판매 100만대를 넘겼다.

창문달린 세탁기로 불리는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버블샷 애드워시'의 판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출시 후 6주 만에 1만대가 넘게 팔려 나갔다.

버블샷 애드워시는 세계 최초로 도어에 작은 창문인 '애드윈도우'를 채용한 제품이다. 잠시 작동을 멈춘 후 애드윈도우만 열어서 세탁물을 추가하고 다시 작동 시킬 수 있어 경제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가전부문에서 냉장고의 매출 비중이 가장 컸지만 올해는 세탁기가 냉장고와 비슷한 규모로 성장했다"며 "'배려'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소비자친화 세탁기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전자의 '트롬 트윈워시'도 새로운 소비자 가치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롬 트윈워시는 세계 최초로 드럼세탁기 하단에 통돌이 세탁기인 트롬 미니워시를 결합한 제품이다.

트롬 트윈워시는 세탁기 두 대 가운데 한 대만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세탁기는 두 제품을 상하로 결합해 기존 세탁기 1대가 차지하던 바닥 면적만큼만 공간을 차지해 효율성을 높였다. 여기에 투입구 높이와 기울기를 조절해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LG전자 관계자는 "트롬 트윈워시는 동급 용량 제품 대비 4배 이상 팔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혁신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조한진 기자 hjc@

LG전자, 유해가스 없는 가스레인지 출시

프리미엄 '광파 가스레인지' 안전·편의성·스타일 갖춰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스레인지 '광파 가스레인지' 신제품을 다음 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광파 가스레인지'는 가스로 만든 불꽃으로 직접 가열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국내 최초로 광파 버너를 세라믹 글라스 상판 아래에 배치해 복사열과 빛으로 상판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유해가스와 불꽃 없이 빛으로 음식을 조리한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가스레인지와 비교하면 일산화탄소 발생량은 96% 줄었다.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도 절약된다.

삼발이 같은 부속품을 없애고 독일 쇼트(SCHOTT)社의 세라믹 상판을 적용해 청소도 간편하다.

안전 기능도 탁월하다. 손잡이의 붉은색 조명은 점화 상태를 확인해 주고, 점화 이후 2시간 연속 사용하면 광파 가스레인지는 자동으로 꺼진다.

이번 신제품은 제품 전면에 스테인리스 소재의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주방 가전, 가구 등과 잘 어울린다.

/양성운 기자 ysw@

디젤차 외면에… 수입차, 가솔린 출시 러시

닛산 맥시마·혼다 파일럿·포드 익스플로러 3.5ℓ 선봬

최근 독일 디젤차 논란으로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4분기 가솔린 모델의 점유율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했던 디젤 모델의 입지가 흔들리자 이틈을 타 닛산·혼다 등 일본업체와 미국 업체가 동분서주 하고 있다.

15일 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차 연료별 등록은 디젤 12만3328대(6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 가솔린차는 4만9121대(27.4%), 하이브리드차는 6297대(3.5%), 전기차는 374대(0.2%)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사고로 폴크스바겐 한 개사의 문제가 아닌 세계 메이커의 공통된 문제"라며 "향후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디젤차를 곧 바로 대체 할 수 있는 모델이 가솔린차라고 보고 있다. 물량·운행조건 등에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가 디젤차 정도로 대중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9월 KAIDA의 연료별 베스트셀링카를 보면 독일 브랜드가 51.4%의 점유율로 가솔린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 뒤를 일본 브랜드(35.9%) 미국 브랜드(12.9%)가 잇고 있다.

업계는 독일산 디젤차 입지가 불안해지면서 가솔린 모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아우디폭크스바겐코리아는 이날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적발된 지 2년여 만에 A6, 티구안 등 약 2200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 중 하나인 아우디 A6 2.0 TFSI(1653대)는 가솔린 모델이다. 이번에 리콜되는 차량은 지난달 발견된 배출가스 조작 차량들과 무관한 모델들이다.

닛산 맥시마

이에 따라 닛산과 혼다 등의 4분기 출시 가솔린 모델의 신차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닛산은 스포츠 세단 맥시마를 출시했다. 1981년 미국 출시 후 지금까지 290만대가 팔린 인기모델이다. 향후 맥시마는 알티마와 자사 가솔린 라인업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알티마는 9월 209대가 팔려 가솔린 모델 베스트셀링카 6위에 올랐다. 맥시마의 가격은 4370만원이다.

혼다코리아는 21일 8인승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파일럿을 출시한다. 혼다는 파일럿의 합세로 중형 세단 어코드, 준중형 SUV CR-V와 가솔린 라인업을 이끌 수 있게 됐다. CR-V 9월 167대 팔려 가솔린 베스트셀링카 9위를 기록했다.

포드코리아는 연말에 3.5ℓ 가솔린 익스플로러를 출시해 라인업을 강화한다. 포드는 지난달 2.3ℓ 모델을 출시했다. 이달 349대를 판매하며 가솔린 베스트셀링카 2위에 올랐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르노삼성, 100억원 규모 민관협력펀드 결성

르노삼성자동차는 15일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100억원 규모의 협력펀드를 결성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르노삼성 서울 사무소에서 황갑식 르노삼성 구매본부장(왼쪽부터), 최철안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 이상경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르노삼성

기아차, 미니밴 1만대 판매 돌파

'카니발 하이리무진' 출시 9년 만

기아자동차의 미니밴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판매 누계 1만대를 돌파했다.

기아차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2006년 국내 시장에 첫 출시된 이후 9년 만에 판매 누계 1만 대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마감기준 총 1만3대를 팔았다는 설명이다.

사측에 따르면 2006년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시된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카니발 기본 모델의 지붕을 개조한 후 하이루프를 장착해 실내 전고를 높였다.

오디오비디오(AV)시스템, 무드램프, 주름식 커튼 등 실내 편의사양을 적용해 편의성을 향상시킨 미니밴형 리무진 차량이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출시 첫해 229대 판매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한 판매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에는 매년 연간 1000대 이상 판매를 달성했다.

지난해 스마트한 편의사양을 갖춘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출시한 이후, 미니밴을 원하는 수요를 타고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42% 늘어난 3516대가 판매됐다.

기아차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물량을 늘리고 고객 대기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사측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인기를 바탕으로 9월 특장차 판매대수가 역대 월간 최다인 2548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기아차, 신형 스포티지 1.7 디젤 출시

복합연비 15.0㎞/ℓ 달성
초고장력 강판 적용
트레디 모델 2253만원

기아자동차는 15일 다운사이징 엔진인 U2 1.7 디젤 엔진을 장착한 'The SUV, 스포티지'(사진)를 출시했다.

사측에 따르면 스포티지 1.7 디젤 모델은 7단 DCT를 장착해 복합연비 15.0km/ℓ을 달성했다. 또 최고출력 141마력, 최대토크 34.7kg·m의 성능을 낸다. 또한 스포티지 1.7 디젤 모델은 전장 4480mm, 전폭 1855mm, 전고 1635mm의 제원과 일반 강판보다 10% 이상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2배 이상 높은 초고장력 강판(AHSS)을 51% 적용했다.

기아차는 스포티지 1.7 디젤 모델의 가격을 트렌디 2253만원, 노블레스 2449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아차는 2.0 디젤 전 트림에서 선택 가능했던 최고급 디자인 패키지인 '스타일 UP' 패키지를 1.7 디젤 엔진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1.7 디젤 모델 전 트림에 74만원만 추가하면 ▲18인치 알로이 휠 ▲LED(발광다이오드) 리어 콤비램프 ▲LED 안개등 ▲LED DRL ▲D컷 스티어링 휠 ▲패들쉬프트 등의 내·외장 디자인 사양을 선택할 수 있다.

기아차 측은 "스포티지는 고성능의 2.0 디젤 엔진과 고효율의 1.7 디젤 엔진으로 구분되는 라인업 강화를 통해 고객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시장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세빛섬 개장 1주년' 한국 랜드마크 자리매김

효성, 누적 방문객 190만명

세빛섬이 15일 오픈 1주년을 맞았다.

세빛섬은 개장 1년 만에 서울 시민의 문화생활 공간인 동시에 한국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며 한강에 색다른 볼거리와 먹거리를 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효성에 따르면 평일에는 평균 4500여명, 주말에는 1만 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서울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세빛섬은 9월말 기준 누적 방문객 수가 190만명을 기록했다.

초대형LED(발광다이오드)스크린이 설치된 예빛섬에서 정기적인 지구촌 영화 상영, KBO 야구 중계, 세계 유명 공연 영상 상영을 진행하고 있다.

솔빛섬에서는 한강 사진전,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전, 뮤지컬 데스노트 팝업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세빛섬은 10월 동안 오픈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프로모션 이벤트도 실시한다.

18일까지 국내 젊은 신진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제 1회 세빛섬 아트 브릿지 페어'를 통해 캘리그라피, 재즈 연주, 버블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다.

31일에는 세빛섬 1주년을 기념해 니콘 디지털 라이브 2015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주년 기념 이벤트·각종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빛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기 기자

증시에 강덕수 효과… STX엔진 한때 21% 폭등

STX 관련 계열주 강세
그룹재건 기대감 표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사진) 석방 소식에 계열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강 전 회장을 석방했다. 회사원 출신으로 STX그룹을 창업, 그룹을 재계 순위 13위까지 끌어올려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그가 그룹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TX엔진은 전 거래일 대비 5.04%(470원) 오른 98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STX엔진은 전일보다 17.9% 오른 1만1000원으로 장을 시작, 장중 한때는 21.11%까지 치솟기도 했다. STX중공업은 2.44%(170원) 상승한 7140원으로 장을 마쳤다. STX중공업도 장 초반 14.35%까지 오르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좁혔다. 이날 STX는 전날보다 0.55%(25원) 내린 449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STX는 15.04% 상승 출발해 17.48%까지 치솟았으나 장 막판 하락 전환해 약보합 마감했다.

이들 STX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인 것은 강 전 회장이 수감된 지 1년 6개월 만에 풀려나면서 그룹경영 복귀 의사를 내비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2조원대 분식 회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강 전 회장은 당초 2조6000억원이 넘는 분식 회계·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분식 회계 액수가 2조3000억원에 달했다. 분식 회계를 통해 은행을 속여 사기성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기소 내용이었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분식 회계 혐의 가운데 5800억원 가량을 유죄로 보고 횡령·배임액도 상당 수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강 전 회장에게 분식 회계를 보고했다는 임원의 진술과 공모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을 나선 강 전 회장은 "(STX그룹 재건에 나설 것은)한번 생각해 보겠다", "격려해준 노동조합에 남은 시간 보답할 것"이란 발언 등으로 경영 복귀 의사를 밝혔다.

강 전 화장은 샐러리맨에서 STX그룹을 세운 신화적인 인물이다. 지난 1973년 쌍용양회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강 전 회장은 28년동안 전재산 20억원을 투자해 자신이 재무책임자로 있던 워크아웃 위기의 쌍용중공업을 인수했다. 이를 모태로 STX그룹을 설립, 조선과 중공업 업체를 사들여 엔진-조선-해운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완성시켰다. STX그룹은 한때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10여년 만에 재계서열 13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신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해운업 침체를 시작으로 조선과 중공업까지 수익구조가 악화, 결국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한 그룹은 해체됐다. STX조선해양은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고 STX팬오션은 법정관리 이후 하림그룹에 팔렸다. STX에너지는 GS그룹에 인수됐고 STX중공업과 STX엔진은 채권단 공동 관리 중이다.

강 전 회장이 공중 분해된 STX그룹 재건 의사를 밝히면서 오랜 침체를 겪어온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STX그룹은 지난 2013년부터 주요 계열사가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재건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조선업은 단기간 내 위기를 돌파할 만한 여력도 없어 보여 강 회장의 고심도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한국거래소, 2015 글로벌 ETF 컨퍼런스 개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5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5 글로벌 ETF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ETF·ETN 전문가 32명이 연사로 참여하고 업계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

KB금융, 대우증권 인수 TF 꾸린다

내달 2일 예비입찰 진행

KB금융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우증권 인수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B금융은 계열사 인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우증권 인수 TF 구성을 다음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상근직에는 인수 적정가격 산정과 기업가치 평가 작업 등을 담당할 KB투자증권의 증권·투자금융 관계자와 은행 자산관리(WM) 전문가가 합류한다. 자금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 홍보팀 관계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될 TF는 인수자금 조달 방법과 합병 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수 자문사와의 소통 업무를 맡는다.

KB금융은 인수 자문사로 모건스탠리와 KB투자증권, 회계자문은 삼정KPMG, 법률자문은 김앤장을 선정했다.

한편 대우증권의 모회사인 KDB산업은행은 내달 2일 대우증권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증권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본총계 4조3049억원으로, NH투자증권(4조4954억원)에 이어 증권업계 2위다.

IB업계에서는 인수가격만 2조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대우증권과 함께 패키지로 매각되는 산은자산운용을 제외한 추정치다.

KB금융은 대우증권을 인수해 자본금 5800억원의 KB투자증권과 합병하면 국내 1위 증권사를 거느리게 된다.

대우증권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는 KB금융 외에 최근 유상증자로 1조2067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미래에셋그룹이 거론된다. /김보배 기자

해외주식투자, 개인↑ 기관투자가↓

펀드 통한 간접투자 감소
특정 대형운용사에 집중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액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투자는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산업 국제화:방향과 정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개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액은 2013년 말 3조7200억원에서 올해 4월 말 5조74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대형 운용사와 외국계 운용사가 공모 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 비중이 90%에 육박해 특정 대형운용사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해외 투자 펀드에서 순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6개 대형사 비중은 66%에 달하고 외국계 8개사는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순자산 기준 1000억원 이상 9개 중형사 비중은 12%, 20000억원 미만의 14개 소형사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김재칠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상당 부분을 글로벌 자산운용회사들이 위탁 운용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2개사 위탁 규모는 5000만 달러에 그치는 등 국내 자산운용사들에 배분된 금액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액은 101조6000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22% 수준이며 사학연금 1조4343억원(11.8%), 공무원연금 3019억원(7.1%)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큰 손 기관투자가의 해외 투자와 자산운용회사의 해외 진출이 동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자산운용사들은 해외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운용 인력과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관투자가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성과 평가와 보상체계를 갖추고 위탁운용사 선정 시 그룹제를 도입하고, 예비운용사(루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부진한 해외진출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과 KIC(한국투자공사)의 해외투자가 180조 가량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수수료가 7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라며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국내 운용사들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해외 주식 원자재 등에 투자할 경우 경험이 많은 외국 운용사로 쏠리고 있다"며 "국내 운용업계 잘못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보배 기자

한은, 기준금리 1.5% 동결

美 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급증 우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5% 수준에서 또다시 동결됐다.

한은은 1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묶어두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인하된 이후 4개월째 연 1.5% 수준에 묶이게 됐다.

최근 내수 회복 추세가 확대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두고 향후의 경기추이를 지켜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유보하자 국내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었다.

그렇지만 이주열 총재는 "경기가 예상 경로대로 가고 있다"며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다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경우 가계부채 급증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은 지난 8월 한 달간 9조8000억원이 늘어 773조1000억원에 달했다.

금융회사의 대출금에 카드 사용금액 등을 합친 가계 신용 잔액은 지난 6월 말 1130조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우려가 커지는 것도 부담으로 여겨진다.

/차기태 기자

미래에셋·코스콤, 스타트업 지원

200억원 '핀테크 펀드' 조성

투자펀드 업무협약 체결 풍부한 경험 시너지 기대

최현만 미래에셋 수석부회장(오른쪽)과 정연대 코스콤 사장이 15일 여의도 코스콤 사옥에서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코스콤이 핀테크(FinTech·정보기술과 금융의 융합)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미래에셋은 코스콤과 15일 여의도 코스콤 사옥에서 최현만 미래에셋 수석부회장과 정연대 코스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핀테크 투자펀드는 미래에셋이 120억원, 코스콤이 80억원을 각각 출자해 이달 말까지 조성된다.

미래에셋은 세계 금융투자 전문가로 벤처기업 투자와 육성 경험을 갖고 있고, 금융 정보기술(IT) 전문인 코스콤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멘토링 지원 등 핀테크 관련 노하우를 갖고 있다.

미래에셋 측은 "핀테크 투자펀드는 경쟁력 있는 핀테크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다"며 "양사의 경험이 풍부한 만큼 탁월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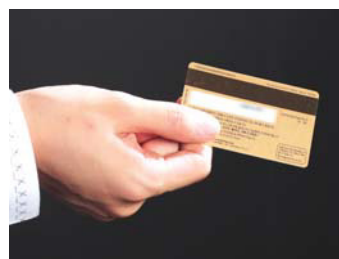
'환율 내리고, 코스피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3개월 만에 장중 1120원대까지 떨어진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거래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전날보다 23.72포인트(1.18%) 오른 2033.27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1조877억원'

신한, 작년比 16.4% 증가

올해 상반기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작년 동기보다 140억원 늘어난 1조8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카드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저금리 영향으로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카드사들의 유가증권매매이익은 789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74억원(71.4%) 감소했다.

또 회원모집을 위한 카드부문 비용은 지난해 상반기 보다 5596억원, 판관비가 1657억원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카드구매실적은 31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2조2000억원(6.7%) 증가했다.

카드론 실적은 17조원으로, 1년 전 대비 2조8000억원(19.7%) 증가했다. 현금서비스는 총 29조8000억원이 취급됐다.

기준금리 인하로 자금조달비용은 545억원이 감소했다. 연체율이 떨어지면서 대손비용이 1933억원이나 줄었다.

개별 카드사 가운데는 신한카드가 지난해 대비 16.4%, 현대카드는 20.8% 증가했다. 반면 KB국민카드는 5.1% 감소했다. 삼성카드도 삼성화재, 제일모직 주가하락 때문에 33% 줄어들었다.

/차기태 기자

신한금투, 보험료 돌려받는 'VIP건강보험' 판매

신한금융투자는 보험료 리턴 기능으로 생활자금과 건강까지 보장받는 신한생명 (무)VIP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무)VIP건강보험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납입 기간 종료 후 매월 그 동안 낸 금액만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10년 동안 총 6000만원을 낸 가입자라면 납입기간이 종료 된 다음달부터 50만원씩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장은 100세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매월 돌려받는 자금으로 생활비 마련도 가능하고 동시에 보장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이다.

또한 한국인의 사망원인 1~3위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보장됨은 물론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암, 2대질병, 5대질병 진단시 또는 50%이상 장해 진단시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가입은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지점에서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센터(1588-0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KB국민銀, 국내 첫 커버드본드 발행

5억달러 규모·5년 만기 확정 미국·유럽 투자자층 다변화

KB국민은행은 15일 국내 기관 중 처음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5억달러 규모, 5년 만기, 미드스왑(MS)+90bps로 발행을 확정했다. 현 시장에서 유통되는 국내 금융기관의 미달러 선순위 무담보(유사만기) 채권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발행금리다.

또한 기존 발행된 외화채권의 투자자 구성이 아시아 중심이었다면, 이번 커버드본드는 미국(51%) 및 유럽(34%) 투자를 유치해 투자자층을 다변화시켰다.

커버드본드는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와 비슷하지만 발행 금융기관의 상환의무까지 부여해 채권의 안정성을 높인 금융상품으로, 조달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다.

이번 커버드본드는 지난해 4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커버드본드법)이 제정된 이후 글로벌 커버드본드 프로그램을 통해 발행된 국내 최초의 채권이다.

글로벌 커버드본드 프로그램은 발행사와 중개기관이 발행금액 및 발행가격을 제외한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제반사항(발행한도, 채권종류, 발행통화, 상환방법,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해 체결한 투자설명서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 발행자가 자금수요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넌딜로드쇼(NDR)를 진행하고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80억 달러의 커버드본드 인출 프로그램을 상장해 이번 발행을 준비해 왔다.

KB국민은행 커버드본드는 무디스와 피치로부터 신용등급인 Aaa, AAA등급을 부여 받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국가신용등급 상향에 힘입어 커버드본드 프로그램에 최고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다"며 "이번 발행으로 새로운 해외자금 조달수단을 개척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필요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상반기 '완판' 중견건설사, 돌풍 이어갈까

분양가 저렴·눈높이 설계 청약 경쟁률순위 싹쓸이

10월, 역대 최다물량 집중 전국서 알짜배기 대거 공급

중견 건설사들이 올해 분양 시장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에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부동산 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단지(공공분양 제외)의 3.3㎡당 평균 분양가 상위 30위 중 25개를 대형 건설사의 단지가 차지했다. 중견건설사가 상위권 대다수를 차지한 청약경쟁률 순위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대형사에 비해 중견건설사의 단지가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들 중견 건설사가 분양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비결로는 전세 고공행진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신규 분양 수요 증가, 중견사들의 우수한 입지 선점, 공간 활용·수납 공간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최신 설계 등을 들 수 있다.

세종시 2-1생활권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는 899만원으로 같은 생활권의 힐스테이트 세종2차 906만원보다 저렴했으나, 청약경쟁률은 평균 44대 1을 기록해 힐스테이트의 26.1대 1를 앞질렀다.

상반기 공급된 상위 30개 신규 단지 평균 청약 경쟁률에서 시공능력평가 10위 내의 대형 브랜드는 8개에 불과했다. 중견건설사의 단지들은 273대 1의 동대구 반도유보라를 비롯해 안심역 코오롱하늘채(169대 1), 대구 만촌역 태왕아너스(155대 1) 등 높은 경쟁률로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계약도 순조롭다. 아이에스동서가 하남 현안2지구에 공급한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 역시 청약에서 당해 1순위에 전 가구가 마감된 데 이어 계약 4일 만에 완판됐다.

동일이 7월 경기도 고양시 원흥공공택지지구에 분양한 '고양 원흥 동일스위트'는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1193가구 모집에 3544명이 몰리며 최고 54.96대 1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일주일만에 마감됐다.

10월 주요 중견건설사 분양예정 물량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 가구수	시공사
인천 소래논현	인천 논현 유승한내들 와이드오션	56	376	유승종합건설
인천 가정지구	가정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	73~84	980	호반건설
김포 한강신도시	이랜드 타운힐스	72~84	550	이랜드건설
고양 삼송지구	고양 삼송 동일스위트 2차	66~84	834	동일
경기 용인시	용인 기흥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73~123	1679	효성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	74~84	640	한양
강원 동해시	동해 북삼 하우스디	59~84	258	대보건설
강원 춘천시	춘천 일성트루엘 더퍼스트	59~140	1123	일성건설
충북혁신도시	건영아모리움 양우내안애	84	842	건영·양우건설
다산신도시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82·84	1085	반도건설
전주 에코시티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59~105	1382	태영건설

중견 건설사의 단지들이 주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다 물량이 집중돼 있는 이달에도 각 지역의 핵심 입지에서 중견사들의 알짜 물량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반도건설이 지난 3월 공급한 '동탄역 반도유보라' 5차와 6차는 100% 필로티 설계, 단지 내 별동학습관 등 설계적 강점과 더불어 동탄2신도시 내에서도 최중심 입지인 KTX동탄역 인근의 입지 등으로 크게 인기를 끌며 각각 55대 1, 62대 1로 1순위 청약 마감한 데 이어 계약 시작 3일만에 전 가구 계약이 완료됐다.

이랜드건설은 한강신도시 Ab-12블록에서 전체 550가구가 전용면적 기준 72~84㎡로 구성된 복합단지 '이랜드 타운힐스'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전 가구가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 타입으로만 제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입별로 복층 설계, 펜트하우스 등의 혁신 평면은 물론 단지 내 4개 테마가든, 어린 자녀를 위한 유럽피안 키즈 빌리지 등 다양한 설계 아이디어가 적용된다.

호반건설은 인천 가정지구 5블록 일원에 '가정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을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24~25층, 10개동 총 980가구로 전 가구가 전용 73~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효성은 23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용인 기흥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6층 17개동 규모이며 전용 73~123㎡ 1679가구로 구성된다.

한양은 경기도 남양주 다신신도시 B-8블록에서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5층 13개동 640세대 규모로 전용 74~84㎡로 구성된다.

태영건설은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을 분양할 예정이다. 4블록 720가구(전용 59~84㎡), 5블록 662가구(전용 59~105㎡) 등 1382가구 규모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이번주도 올랐다

매매 0.14%·전세 0.18% ↑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은 1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14%, 전세가격은 0.18% 각각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전세는 0.01%포인트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지난주 0.13%에서 금주 0.09%로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서울이 지난주 0.19%에서 이번주 0.2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대구(0.22%), 울산(0.18%), 제주(0.24%) 등의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강세를 보였다.

전세는 서울이 0.30%로 지난주 0.26%보다 0.04%포인트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도는 지난주와 같은 0.24%의 상승세를 보였다.

대구(0.19%), 울산(0.14%), 강원(0.16%), 충북(0.07%) 등지의 전셋값이 지난주보다 많이 올랐다.

오피스텔, 수익률 하락에도 매매가 상승세

저금리에 투자 관심 꾸준 경기도 0.23%로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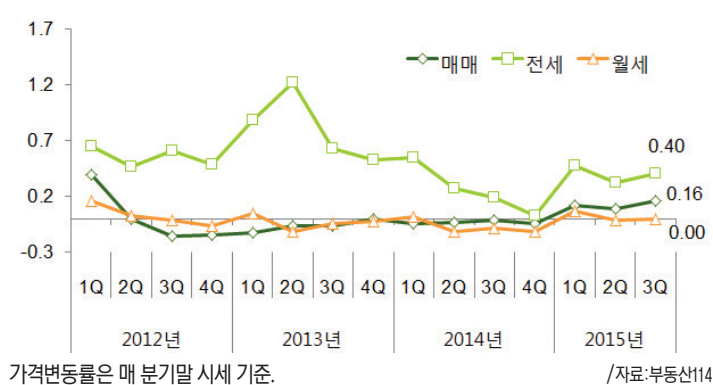
전국 오피스텔 가격변동률 추이 단위:%

가격변동률은 매 분기말 시세 기준. /자료:부동산114

상반기 호조를 보인 오피스텔 시장이 3분기에도 매매 상승세를 이어갔다.

15일 부동산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3분기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와 전세는 임대수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임대수익률은 5.70%로 2007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1%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탓에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0.23%로 가장 높았고 ▲서울 0.16% ▲인천 0.12%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0.26%의 변동률을 보였다.

오피스텔 매매가는 꾸준히 오른 반면 공급물량에 비해 임대수요는 크게 늘지 않은 탓에 임대수익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6.33%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기 5.70%, 서울 5.33% 순으로 이어졌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6.04%로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고 부산이 5.81%로 뒤를 이었다.

임대수익률 하락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은 꾸준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한 후 3개월 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여전히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덕분이다.

오피스텔 전세는 0.40% 상승했다. 오피스텔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데다 아파트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상승 폭은 전분기 대비 0.08%p 커졌다.

한편 월세 가격은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공급과 수요 증가에 따른 등락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수도권은 지역별로 ▲서울(0.03%) ▲경기(-0.03%) ▲인천(-0.15%)의 변동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2분기 2279실의 입주물량을 해소하지 못한 성남시는 -0.02%, 3분기 2471실의 대규모 입주물량을 기록한 수원시는 -0.24%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박상길 기자

삼성물산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 분양

전용 59~123㎡ 416가구

삼성물산이 사당1구역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해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 59~123㎡ 총 668가구로 구성된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41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남성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동작대교 진입이 편리하다.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장재터널이 각각 2016, 2018년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삼성서초타운과 삼성 서울 R&D 캠퍼스가 올 11월 입주할 예정이다.

단지 앞에 국공립 어린이집 3곳을 비롯해 삼일초와 남성초, 사당중, 동작중, 동작고, 경문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강남 8학군 서문여고가 인접해있고 반포 학원가도 가깝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 4층에 마련된다. 입주는 2018년 4월 예정이다. 문의 02-449-4747.

한라, 2413억 규모 배곧신도시 신축 수주

한라(대표 정몽원)는 2413억원 규모의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C5블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계약 상대는 계열사로 특수목적법인(SPC)인 배곧신도시지역특성화타운 주식회사이며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12.68%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실착공 후 35개월이다. 한라는 이달 말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3차' 분양을 앞두고 있다.

1초에 2명·유커 3명 중 1명… 2820만명 방문

수치로 본 롯데월드몰 1년

123층 타워완공시 연 3000억 관광 수입 생산·경제 부가가치 약 9조원 유발 효과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제2롯데월드(롯데월드몰)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롯데물산(대표 노병용)은 롯데월드몰 개장 1주년을 맞아 1년간 15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을 유치하는 등 282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5000만명 가운데 2명 중 1명 꼴로 방문한 셈이며, 2만6000석의 잠실야구장이 3년동안 만석이 되는 인원 수와 맞먹는다.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영업시간을 12시간으로 환산 시에는 1초당 2명 이상이 롯데월드몰을 찾은 셈이 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 평균 5000명 이상, 1년간 200만명 가량이 찾았다. 이 중 요우커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390만명, 이 중 절반 가량인 610만명 정도가 중국인이다. 한국을 찾은 유커 3명 중 1명(160만명)이 롯데월드몰을 찾은 셈이다.

서울 명동과 홍대 등 강북 특정 상권에만 머무르던 유커들이 롯데월드몰을 찾으면서 유커들의 쇼핑지도가 서울 강남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롯데월드몰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휴식 시설을 모은 일반적인 몰 개념을 넘어 420여 브랜드를 갖춘 면세점과 대형 수족관, 초고층까지 들어선 이른 바 3세대 복합 쇼핑몰로 국내 고객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까지 끌어들였다.

매출은 5개월이 넘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1조 1500억원을 달성했다.

롯데월드몰과 롯데월드타워는 대지면적 8만7183㎡, 전체 연면적 80만7614㎡로 단지 내 주요시설들이 국내외 최대·최고 규모를 자랑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국내 최대 규모로 2만5973㎡, 국내 최다인 420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명품백화점인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역시 연면적 7만7702㎡ 규모로 225개의 국내 최다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관으로 총 21개관에 4600석을 완비하고 있다. 21관 수퍼플렉스G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스크린(34m, 13.8m)을 자랑한다.

15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몰 7층 '시네파크'에서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를 비롯한 롯데물산과 운영사, 파트너사 임직원들이 모여 롯데월드몰 1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했다. /롯데물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국내 최대 도심형 수족관이다. 총면적 1만1240㎡에 국내 최다 650종 5만5000여 마리의 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85m의 국내 최장 수중터널과 수도권 최대의 5300t 메인 수조가 있다.

2016년 말 완공될 롯데월드타워는 국내 최고층인 123층, 최고 높이 555m의 랜드마크 건축물로, 117~123층의 전망대 SKY 123은 지상으로부터 500m 높이에 위치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로 기록될 예정이다.

76층(320m)부터 101층(414m)에 들어서는 6성급 호텔은 국내 최고 높이의 호텔로 기록될 전망이다. 85층에는 국내 최고 높이의 실내 풀장도 들어선다.

롯데월드몰의 테마 식당가인 5~6층의 서울서울3080과 29스트리트의 인기 맛집과 3층 홍대 맛집을 모아놓은 홍그라운드, 아시아 최대 규모와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로 34m의 초대형 스크린을 가진 시네마 등의 입점도 방문객을 끌어들인 주 요인이다. 롯데월드몰의 식당가는 전체 쇼핑몰 면적 중 가장 높은 29.1% 차지한다.

롯데월드몰은 지난해 10월 14일 에비뉴엘과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시네마와 쇼핑몰, 면세점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했다. 1주년 행사에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과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 각 운영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롯데월드타워는 현재 123층 중 116층 다이아그리드 철골 구조를 건설 중이다. 올해 외관 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2016년 말 완공한다는 목표다.

롯데월드몰의 매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2조6000억원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7800억원을 더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롯데월드타워까지 완공되면 향후 생산유발효과 및 경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물산측 설명이다.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는 "지난 1년간 롯데월드몰을 찾아준 수많은 국내외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 123층 555m의 타워까지 완공되면 기존 잠실 롯데월드를 포함해 연간 250만 명의 해외관광객 유치와 약 3000억원의 관광수입, 약 9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롯데물산은 개장 1주년을 기념해 11월 중순까지 약 60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잠실 대바자회, 국내 최초 가족사진대회, 국내 최대 규모의 명품 시계 박람회 등을 차례로 개최한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면세점 제도 개선 불가피… 이익 환수 확대해야"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

독과점 완화 방안 필요 점진적 제도 개선해야

롯데와 신라가 독과점을 형성하는 국내 면세점 시장의 특허수수료가 운영 기업의 매출 대비 낮아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사업자 하향 평준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시행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일형)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면세점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독과점 사업자 참여 제한 방안, 이익 환수 확대를 위한 특허수수료 인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청회 발제문에서 "2014년 면세점 시장 규모가 약 8조3000억원이고 주요 면세점 업체의 영업이익을 합하면 5525억원에 이르는데 반해 특허수수료는 4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매출액에 비하면 특허수수료가 극히 낮아 이익 환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면세점 시장은 대기업 매출액이 전체의 86.9%에 달하고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전체의 79.6%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2015년 7월 기준 국내 면세점 시장은 대기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롯데와 신라의 매출이 약 79.6%에 달하고 있다. 기업별로는 롯데가 50.1%로 가장 높고 신라 29.5%, JDC 5.3%, 동화 3.8%, 관광공사 2.0%, SK·신세계 3.3% 순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 방안으로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 참여 제한 ▲시장점유율 특허 심사 평가 기준 반영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 참여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면세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대해 이날 토론자들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즉각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하향 평준화가 되는 등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경영활동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점유율을 특허 심사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 순서대로 총점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식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이익 환수 방안으로 특허수수료 인상이나 입찰방식의 변경을 제안했다.

특허수수료 인상안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대기업의 특허수수료를 0.5%로 올리거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차등 부과는 매출액 1조원 이상은 매출액의 1.0%, 5000억원~1조원은 0.75%, 5000억원 미만은 0.5%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박상길 기자

공차 '리치 더 라떼' 출시 공차코리아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차 광화문점에서 '리치 티 라떼' 3종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롯데마트, 베트남 11호점 '껀터점' 오픈

현지 유명 브랜드 매장 집중 유치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껀터시에 베트남 11호점을 15일 오픈했다.

롯데마트 껀터점은 껀터시 머우턴 거리에 지상 3층, 매장 면적 1만1702㎡(약 3540평) 규모로 들어서며 1층은 임대 매장, 2층은 식품, 비식품 셀프 쇼핑 매장, 3층은 영화관으로 구성됐다. 1층에는 롯데리아를 비롯해, 베트남 인기 비비큐 브랜드인 고기(Gogi), 현지 인기 비어클럽인 부부젤라(Vuvuzela) 등 레스토랑과 함께 껀터시 최대 규모 키즈시설 및 의류 브랜드 매장이 함께 들어선다. 2층의 셀프 쇼핑 매장에는 300여종의 다양한 인기 한국상품들을 별도 존(Zone)으로 구성하고 한국의 간편 먹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델리카 코너도 마련했다. 3층은 3D 상영관 1개관을 포함해 총 4개관의 롯데시네마가 644석 규모로 들어서며 점포 외곽에는 1100여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도 별도 마련했다.

롯데마트는 껀터점에 현지 유명 브랜드 매장을 집중 유치하고 야외 상설 이벤트 무대 등을 마련해 지역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면 두피와 모발 고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을이 되면 큰 일교차로 인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진 두피에 각질이 생기고, 여름 동안 두피에 쌓인 피지나 먼지 등의 노폐물은 원활한 혈액순환을 막아 탈모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체내에서 탈모에 영향을 주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탈모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각별한 두피와 모발 관리가 중요하다.

케라시스 네이처링 /애경

여름내 쌓인 두피 노폐물, 가을 탈모 '주범'

모근강화·영양공급… 전용 샴푸로 탄력있게

효과적인 탈모 예방을 위해선 매일 머리를 감으면서 관리하는 기본적인 두피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두피 전용 샴푸를 사용해 두피를 청결하게 가꾸고 머리를 감은 후에는 두피와 모발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 제품을 사용해 두피부터 모발까지 영양을 공급한다. 트리트먼트를 사용할 때 손가락 끝을 이용해 부드럽게 두피 마사지를 병행하면 모발과 두피가 영양분을 잘 흡수해 두피가 건강하게 유지된다.

려 자양윤모탈모방지트리트먼트

아모레퍼시픽의 려 '자양윤모' 라인은 황금, 감초, 백자인 등의 귀한 한방 성분을 함유, 탈모의 근본 원인을 3단계로 케어해 탈모방지와 모근 강화 효과가 있는 제품 라인이다.

자양윤모 샴푸액은 '모근이 약해져 힘없이 빠지는 모발', '영양 불균형으로 가늘어져 빠지는 모발',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빠지는 모발'을 케어해 탈모의 근본 원인을 다스려 주는 샴푸다.

자양윤모 탈모방지 트리트먼트는 식약처 허가 탈모방지·양모 의약외품이다. 모발의 근본인 두피에서부터 시작해 모발 끝까지 영양을 공급, 모발을 굵고 튼튼하게 케어해 주는 트리트먼트 제품이다. 모근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백자인 성분 처방으로 뿌리부터 모발을 굵고 튼튼하게 케어하며 의이인 성분이 함유돼 있어 두피를 진정시켜준다. 모발과 두피에 동시에 사용 가능해 두피가 건조해지기 쉬운 가을철에 사용하기 제격이다.

리엔 보양진 민감성 샴푸

LG생활건강의 프리미엄 한방 샴푸 '리엔 보양진'은 식약처로부터 탈모방지 및 모발의 굵기 증가로 효능효과를 허가 받은 의약외품이다. 모발강화 특효성분인 진효본연단™과 모발영양 성분인 어성초, 자소엽, 녹차, 강황과 두피보양을 위해 엄선된 홍삼, 상백피, 영지, 로얄젤리 성분이 모발과 두피를 집중 관리 해준다. 또 허가 받은 주성분이 탈모방지와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켜준다.

큰 일교차에 유·수분 밸런스 '와르르' 각질 생기면 혈액순환 막아 탈모 촉진

힐링포스 프로페셔널 스캘프 세럼

'비욘드 힐링 포스 프로페셔널 스캘프 샴푸'은 센틸라 아시아티카 등 비욘드만의 프리미엄 에코 포뮬러가 두피와 모발에 강력한 생명력을 부여하고 특허 받은 천연추출물로 두피 모공을 케어하고 모근을 강화시켜준다. '힐링 포스 프로패셔널 스캘프 세럼'은 탈모방지 두피 에센스로 천연 식물 추출물이 굵고 탄력 있는 모발로 성장을 촉진한다.

두피 샴푸도 새로운 형태의 탈모 관리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애경의 '케라시스 네이처링 샴푸'가 대표적이다. 케라시스 네이처링 샴푸는 두피모공은 얼굴모공보다 최대 2배 가량 크다는 부분에 착안해 개발된 샴푸로 두피뿐만 아니라 두피모공 케어까지 가능한 제품이다.

특히 건강한 머릿결의 근원인 두피 모공을 막는 실리콘 성분은 물론 방부제인 파라벤과 이소치아졸리논, 실리콘과 색소 등을 첨가하지 않아 두피와 모발의 자극을 줄였으며, 전문평가기관 P&K피부임상연구센터의 피부자극테스트 임상실험을 통해 피부저자극 효과를 입증받기도 했다.

려 자양윤모 탈모방지 샴푸액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가을철 탈모 예방 생활습관

해조류 섭취로 모공 강화 산책 30분 모발 영양공급

두피는 모발의 근원이 되는 세포가 생성되는 곳이다. 얼굴 피부와 마찬가지로 두피도 28일을 주기로 해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키고 그 세포들이 모발의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에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생활 습관으로 두피 면역력을 높여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두피·모발에 좋은 음식 섭취

영양소가 부족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탈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좋은 영양 성분을 다량 함유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탈모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검은콩이 있다. 미역, 다시마, 김 등의 해조류 역시 도움이 된다. 비타민B1과 비타민E가 풍부한 호두는 탈모 방지에 효과적인 지질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잣은 모공 강화 및 모발 윤기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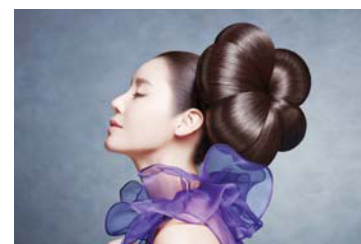
◆ 가벼운 운동으로 신진대사 촉진

가을철이 되면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일조량도 급격히 내려가면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당한 햇볕에서 30분 가량 산책을 하는 것이 탈모를 예방하는데 좋다.

또한 가을에는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운동량이 줄어들며 활력을 잃을 수 있는데, 평소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야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가벼운 유산소운동은 땀을 통해 몸 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전신에 혈액이 잘 순환되게 하여 모발까지도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한다.

◆ 손쉬운 자가 진단법

탈모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힘들다. 그래서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다음 2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초기탈모를 의심해 봐야 한다.

▲한 손으로는 정수리의 머리를 다른 한 손으로는 뒷머리를 엄지와 검지로 살짝 잡아, 모발의 굵기와 양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느껴진다. ▲머리카락이 얇아졌으며 푸석하고 힘이 없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욕실의 수채구멍이 막힌다. ▲자고 일어난 뒤의 배게 혹은 외출 후 벗은 옷에 머리카락이 많이 붙어있다. ▲두피가 간지럽거나 각질, 과도한 유분, 지루성두피염 등의 증상이 있다. ▲거울로 정수리를 비춰봤을 때 가마부분의 두피가 보인다. /정은미 기자

사람 살리는 생명 콘서트…

이달 30일 라이프 콘서트 금천구청 나래아트홀서 생명의 소중함 전시·강연

생명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는 보건복지부, 금천구청, 금천문화행동과 함께 오는 30일 '라이프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라이프 콘서트'는 '사람을 살리는 힘, 진짜 사랑'이라는 테마로 오는 30일 오후 6시30분부터 '나를 살리는 그림' 전시회와 함께 금천구청 금나래아트홀 지하 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어머니는 소풍 중'의 저자 황교진 작가와 드림라이프의 대표 유정현이 연사로 나선다. 드림라이프 성악가팀의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황교진 작가는 19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생긴 희망,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변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 앞에서 숨 쉬는 것조차 괴로웠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느낀 진정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유정현 드림라이프 대표는 심한 외로움에 우울증을 3번이나 앓았고 지금도 가끔씩 우울증이 찾아지만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계기를 털어놓는다. "삶이 노래라면 사랑은 바로 그 음악"이라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음악이라는 사랑'을 전할 예정이다. 유 대표는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 우울증을 지금은 축복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고백한다.

이밖에도 라이프콘서트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공연에는 드림라이프의 성악가 팀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노래를 준비해 10월 마지막 금요일 밤 멋진 노래 선물을 선사한다.

라이프의 이명수 운영위원장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관객들이 느끼고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라이프 콘서트'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생명을 값없이 얻었기에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라이프 콘서트'는 온오프믹스(www.onoffmix.com)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0일 현장에서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LIFEwooriga, 이메일 lifewooriga@naver.com, 전화 070-8666-0045)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타가토스' 해외시장 공략

유럽 이어 美와 수출계약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은 최근 유럽과 556톤 규모(41억원)의 감미료 '타가토스(Tagatose)' 수출계약을 맺고 1차 선적을 시작한데 이어 미국과도 수출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시장공략을 통해 2020년까지 타가토스와 초저칼로리 감미료 '알룰로스'의 연 매출을 7000억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알룰로스는 현재 북미시장에 수출되고 있다.

타가토스는 우유, 치즈, 카카오 등의 식품과 사과와 같이 단맛이 나는 천연과일에 극히 소량만 존재하는 천연 감미료로, 혈당지수(GI)는 '3'으로 설탕의 5% 수준이다. 단맛은 설탕의 약 92%로 설탕 대체재 중 설탕과 가장 유사한 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설탕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유럽 수출을 기점으로 기능성 신소재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타가토스를 활용해 다양한 소비자용·기업용 제품을 유럽 전역에 유통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식사대용으로 제공되는 단백질 쉐이크 음료와 건강 디저트 케이크 등에 타가토스를 활용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 유럽 중심의 설탕 대체 감미료 시장에서는 타가토스를, 북미 중심의 과당 대체 감미료 시장에서는 알룰로스를 주력으로 '건강한 단맛'을 추구하는 글로벌 감미료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춤형 힐링 테라피

메이필드호텔 '가을 뷰티 케어 패키지'

수영장·피트니스·스파 무료 이달 말까지 주중 26만원대

메이필드호텔(대표 장도현)은 이달 말까지 전신 스트레칭부터 바디와 두피, 페이스 케어까지 총 80분동안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제공하는 가을 뷰티 케어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패키지에는 슈페리어 객실 1박, 바디&페이스 케어(1인), 뷔페 레스토랑 '미슐랭' 조식 2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모든 패키지 이용 고객은 수영장과 피트니스, 키즈 클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패키지 이용 가격은 슈페리어룸 1박, 미슐랭 조식(2인), 스파케어(1인) 포함 기준 주중 26만8000원, 주말 29만4000원부터다.(VAT 별도)

클럽 메이필드 스파는 '도심에서 즐기는 어웨이 스파' 컨셉으로 3개의 프라이빗룸, 1개의 커플룸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문

클럽 메이필드 스파.

테라피스트의 1대1 상담을 통해 고객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트리트먼트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종이팩에 무균충전… 영양손실 최소

롯데칠성음료

오렌지100·망고플러스 출시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테트라 프리즈마팩에 담아 더 신선한 주스 델몬트 '오렌지100플러스', '망고플러스'(사진)를 15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여섯 겹의 종이팩에 무균 충전해 외부 빛과 공기를 차단해 주스의 고유 향을 유지시키고 영양 손실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당도가 높은 오렌지과즙 100%를 사용한 '오렌지100플러스'와 새콤달콤한 맛에 부드러운 식감이 돋보이는 망고과즙 20%를 넣은 '망고플러스' 2종으로 구성됐다.

롯데칠성음료는 가족의 형태가 점점 소가족화되면서 최근 주스 제품도 부담 없는 용량으로 간편하게 즐기고 싶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1.5ℓ나 1.8ℓ 페트 제품이 아닌 패밀리 사이즈의 우유와 같은

1ℓ용량으로 제품을 선보였다.

패키지는 8각형 모양인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돼 제품을 잡거나 따를 때 기존 사각형, 원형 패키지보다 그립감과 안정감을 높였으며, 라벨에는 파란 하늘과 농장 이미지를 담아 농부의 땀과 정성, 델몬트의 자연친화적 느낌을 표현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주스는 단백질, 칼슘 등 영양소가 풍부한 우유처럼 현대인의 고른 영양섭취를 위해 제격인 음료"라며 "테트라 프리즈마팩에 담아 더 신선하고 건강해진 델몬트를 가족 건강을 위한 주스 이미지로 적극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락앤락

롯데판 '블랙프라이데이' 참가

락앤락(대표 김준일)은 이달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롯데판 블랙프라이데이'에 대규모 매장으로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서 락앤락은 주방용품부터 보온용품, 수납용품, 생활용품까지 락앤락의 인기 상품을 35% 일괄 할인 판매한다. 또 다양한 특별전을 통해 일부 제품을 최대 75%까지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

김장철을 맞아 플라스틱과 내열유리 등 소재별 밀폐용기에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선보일 예정이다.

G마켓

오프라인 캐시충전 서비스

G마켓은 PC방에서 G마켓 스마일캐시를 충전할 수 있는 '오프라인 캐시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캐시충전 서비스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3000여 개의 PC방에 설치된 터치페이 무인단말기를 통해 제공된다. 24시간 운영되는 터치페이 단말기를 통해 G마켓에서 상품 구매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스마일캐시를 충전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일캐시는 옥션, G9 등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 결제수단이다.

CGV 대학로

문화 놀이 공간으로 재탄생

CGV 대학로가 영화와 음악, 연극을 즐기고 아티스트와도 소통할 수 있는 지역 대표 문화 놀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CGV는 기존 CGV 대학로를 확장된 컬처플렉스 개념을 도입한 CGV 대학로 문화극장으로 재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8개 상영관 1184석의 객석은 영화 상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대학로에 터를 잡고 관객들과 소통해 왔던 연극, 배우들과의 만남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될 계획이다. 인디밴드 등 뮤지션들의 공연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6년근 홍삼 주원료… 갱년기 고민 덜어준다

KGC인삼공사

女 갱년기 신제품 '화애락 큐'

KGC인삼공사(대표 박정욱)가 갱년기 여성용 신제품인 '화애락 큐'(사진)를 15일 출시했다.

화애락큐는 정관장 6년근 홍삼을 주원료로 고품질의 전통 원료인 복령, 백출, 작약, 당귀, 죽엽 등의 부원료를 결합해 만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홍삼의 5대 기능은 물론 중년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갱년기 여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먹기 쉽고 휴대성이 좋은 타브렛 제형으로 개발돼 편의성도 높였다.

화애락큐는 이날 홈앤쇼핑 방송(오전10시20분) 론칭을 시작으로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가격은 500㎎×120정에 13만원이다.

star bag

케이팝 안내서 美 배포

가수 **싸이**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와 함께 미국 내 대학교에 케이팝(K-POP) 안내서를 제작해 비치했다. 싸이는 "케이팝을 궁금해하는 외국 팬이 케이팝에 좀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색 콘셉트 공연

가수 **호란**이 이색적인 콘셉트의 공연을 개최한다. 소속사 플럭서스 뮤직은 "호란이 오는 24일 오후 7시 레진코믹스 브이홀에서 '호란의 중간고사'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펼친다"고 전했다.

9년 만의 전국 투어

밴드 **버즈**가 9년 만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한다. 버즈는 '디 오리지널(The Original)'이라는 타이틀로 다음달 21일 부산 KBS홀을 시작으로 서울·대구·성남 등지에서 콘서트 투어를 연다.

매력적 연상녀 변신

배우 **김유미**가 웹드라마 '맛있는 연애'에서 매력적인 연상녀로 변신한다. 그룹 B1A4 멤버 공찬이 연기하는 셰프 박성준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상의 여자 강유나 역을 맡았다. 작품은 한국과 중화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터널 선샤인' 노래로

가수 **윤종신**이 영화 '이터널 선샤인'을 모티브로 삼은 노래 '기억의 주인'을 월간 프로젝트 '월간 윤종신'의 10월호로 발표한다. 지울 수 없는 사랑의 기억에 대해 노래했다. 오는 20일 자정 공개된다.

바꾸고픈 과거? 앞으로 갈 길이 더 멀죠

영화 '더 폰' 손현주

영화 '숨바꼭질'과 '악의 연대기', 그리고 '더 폰'(감독 김봉주)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평범한 삶을 살던 가장이 주인공이라는 점, 이들이 뜻하지 않은 위기에 처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스릴러로 풀어냈다는 점이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 바로 배우 손현주(50)가 이 세 영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손현주표 스릴러 3부작'이다.

물론 이는 손현주의 의도는 아니었다. "'더 폰'까지 마친 뒤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진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그의 고백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손현주가 계속해서 스릴러 장르의 작품을 선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가 선호하는 캐릭터와 연기가 이 작품들에 잘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스릴러가 아니에요. 다만 아주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탈출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해리슨 포드나 브루스 윌리스를 보면 5분 안에 라도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인공은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으로 작품에 임해요."

> 참신한 설정에 끌려서 선택
> 자전거 액션 등 과감히 소화
> 연이은 스릴러 소진된 느낌
> 한 템포 쉬고 편안하게 갈 것

더불어 손현주의 마음을 끄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 바로 참신함이다. 오랜만의 스크린 컴백작으로 '숨바꼭질'을 선택했던 것도 자신의 집에 누군가가 숨어 산다는 독특한 설정 때문이었다. '더 폰'도 비슷한 이유에서 마음이 움직였다. 영화는 태양 폭발로 인한 통신 장애로 1년 전 죽은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는 설정을 다룬다. 다른 영화에서는 접할 수 없는 신선함이다.

독특한 설정인 만큼 캐릭터를 이해하고 연기하는 데는 힘든 점이 많았다. 과거가 변함에 따라 현재도 같이 변한다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는 것도 중점을 둬야 했다.

"처음 시나리오를 보면서 죽은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는 부분까지만 읽고 책을 덮었어요. 그 뒤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이 됐죠. 그래서 감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김 감독이 말한 게 '영화를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관객이 믿어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보다 조금 더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요."

긴박한 액션도 '더 폰'만의 매력 중 하나다. 특히 청계천 연등 행사를 무대로 한 자전거 추격전은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이 함께 공들여 찍은 티가 나는 '더 폰'의 백미다. "촬영 며칠 전 김봉주 감독이 물어보더라고요. 자전거를 탈 수 있냐고요. 그때 못 탄다고 할 걸 그랬나봐요(웃음). 청계천부터 을지로, 광교, 모전교, 무교동 등 도심 한 가운데에서 촬영한 건 참 오랜만이었어요. 색다른 경험이었죠."

손현주에게 영화처럼 1년 전의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물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갈 길도 먼데 크게 되돌리고 싶은 과거는 없다"며 웃었다. 그 말처럼 손현주는 배우로서의 다음 행보를 생각한다.

"제가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다 연기해봤는데요. 그렇다고 화려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늘 무언가에 쫓기는 역할을 연기했어요. 그게 제 팔자인가봐요(웃음). 예전부터 코미디를 좋아했어요. 드라마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편안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피도 눈물도 없는 악역도 해보고 싶어요. 다만 스릴러는 한 템포 쉬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중 곁에 있는 배우로 편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NEW

故 신해철 유작 LP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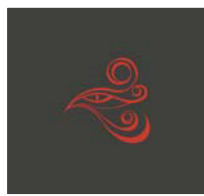
사망 1주기…숨은 명곡 수록 '웰컴 투 리얼 월드' 27일 발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신해철(사진)의 1주기를 맞이해 그의 유작을 담은 LP가 출시된다.

신해철의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는 27일 고 신해철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웰컴 투 리얼 월드(Welcome To The Real World)'의 LP판을 출시한다"고 15일 전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앨범은 3000장 한정판으로 고유번호가 표시된 카드를 포함한다. 고인의 유작 '웰컴 투 리얼 월드'를 비롯해 총 3곡의 유작이 수록돼 있다. 또한 '더 늦기 전에' '그저 걷고 있는 거지' '길 위에서' '힘을 내' 등 생전에 팬이 좋아한 숨어있는 명곡까지 총 40곡을 수록했다.

최근 고인의 사망 1주기가 다가오면서 KBS2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와 JTBC '히든싱어4' 등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추모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1주기를 하루 앞둔 오는 26일에는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을 야외 안치단으로 옮기는 봉안식을 거행한다. 유족들과 함께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고 신해철의 '웰컴 투 리얼 월드' LP는 15일부터 예스24를 통해 주문 예약이 가능하다. /장병호 기자

◀ '웰컴 투 리얼 월드' LP판 표지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꽃 향기 가득 머금은 세계유산 조선왕릉

들국화 체험행사·사진전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남효대)는 17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사릉(사적 제209호)에서 '우리 들국화 알리기 체험행사 및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가 잠들어 있는 사릉(思陵)은 단종을 평생 그리워하며 보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번 행사는 사릉 내 전통수목 양묘장에서 정성들여 가꾼 우리 고유의 자생 들국화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들국화가 만개한 가을에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사릉 관람로를 따라 펼쳐진 감국, 산국, 구절초 등 자생 들국화 화분 전시와 들국화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개최된다.

또한 들국화 꽃밭에서 사진 찍기, 들국화 밭에서 국화차용 꽃따기 등 체험에도 참여할 수 있다. 본초강목에 의하면 국화는 혈기에 좋고 몸을 가볍게 하며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했다. 감기·두통·현기증에 좋아 민간에서는 말린 꽃을 베갯속으로 사용하거나 차로 마시기도 했다.

한 소년의 위험한 글쓰기에 담긴 욕망

후안 마요르가 대표작 '맨 끝줄 소년'
예술의전당 기획 공연 내달 10일부터
관객 스스로 사유하도록 질문 던져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이 연극 '맨 끝줄 소년'을 11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자유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예술의전당의 기획공연 브랜드 'SAC 큐브(CUBE)'의 국내 초연 시리즈 작품으로 스페인 현대 극작가 후안 마요르가의 희곡을 국내 대표 중견 연출가 김동현의 해석으로 선보인다.

맨 끝줄 소년은 연극 '다윈의 거북이', '영원한 평화', '하멜린' 등 작품마다 지적이며 기발한 소재와 이야기 구성으로 관객들의 연극적 상상력을 자극해 온 후안 마요르가의 또 다른 대표작이다.

후안 마요르가는 현실에 대한 예리한 풍자와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재치있게 담아내는 특유의 극작 스타일로 매 작품마다 국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현재 마드리드 왕립 드라마 예술학교 교수이자 라로카 데라카사(La Loca de la Casa)극단의 연출 겸 극작가이다.

철학을 전공한 마요르가는 연극이란 장르를 통해서 관객들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사유할 수 있도록 '연극으로 철학하기'를 선보이고 있다. 희곡의 언어와 작품의 주제에 계몽적 메시지를 담는 방식이 아닌, 관객 스스로가 사유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극작을 펼치고 있다.

연극 맨 끝줄 소년은 작가가 수학을 가르치던 때 한 학생이 시험지에 답 대신 '시험공부를 하지 못한' 이유를 제출한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스페인 작가, 출판인 협회 회원들이 뽑은 스페인 최고 권위의 막스상(Max)을 수상했다.

타고난 이야기꾼, 영화감독 프랑소와 오종(Francois Ozon)이 선택한 맨 끝줄 소년은 2013년 국내에서 영화 '인 더 하우스(In the House)'란 제목으로 개봉해 평단의 호평과 함께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소년의 위험한 글쓰기에 담긴 욕망과 호기심, 현실과 가상의 숨 가쁜 줄타기를 특유의 분위기로 밀도있게 그려내 2012 산세바스티안 영화제와 토론토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연극은 영화와는 다른 결말로 또 다른 분위기를 선사한다. 섬세하고 예리하게 분석으로 어느 한 문장의 의미도 놓치지 않는 김동현의 연출방식은 후안 마요르가의 추구하는 연극과 그 방향성을 같이 한다.

맨 끝줄 소년 클라우디오 역은 지난해 연극 '에쿠우스'의 알런 역으로 관객들에게 깊이 각인된 배우 전박찬이 맡았다. 문학교사 헤르만 역은 2007년 연극 '심판'으로 동아연극상 신인상을 수상한 박윤희가 연기한다. 헤르만 교사의 부인이자 큐레이터로 등장하는 후아나 역에는 연기파 배우 염혜란이 캐스팅됐다.

자유소극장 무대를 가장 잘 꿰뚫고 있는 무대 디자이너 박상봉·스타음악감독 김태근, 베테랑 조명 디자이너 김성구, 연극계 최고의 디자이너로 꼽히는 분장 디자이너 이동민, 캐릭터의 농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의상 디자이너 이명아 등 내로라하는 스태프진들이 합류해 완벽한 무대를 선사한다.

중학생 이상 관람가, 3만원·5만원, 맨 끝줄 좌석 1만원. 문의 (02) 580-1300.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소림사의 지옥 훈련을 견뎌라

◆ SBS '주먹쥐고 소림사'
토요일 오후 6시 25분

무림의 세계, 그 중심에 있는 중국의 소림사로 여섯 남자가 찾아간다. 리더 김병만을 필두로 박철민, 육중완, 온주완, 김풍, 이정신은 화려하고 힘찬 동작이 특징인 북소림사의 무술 습득에 도전한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봤던 화려한 동작 위주의 훈련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들의 훈련을 맡은 소림사의 스승은 지옥 훈련과 다름없는 기초 체력 훈련 만을 강조한다. 스타라는 신분을 내려놓은 이들의 소림 적응기가 그려진다.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 25분

연예계 숨은 바보들의 매력을 증명하는 '바보 전쟁-순수의 시대'특집이 진행된다. 하하와 황광희가 선정한 인물들과 '바보 어벤져스'팀을 결성해 창단식을 거행한다.

◆ SBS '오 마이 베이비'
토요일 오후 5시

강화도 자연 체험에 나선 율자매는 다양한 동물에게 먹이를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개 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한 지율은 강아지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 SBS '백종원의 3대천왕'
금요일 오후 11시 25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원한 소울푸드 '치킨'을 주제로 백종원의 맛집 사냥이 시작된다. 조선팔도 치킨을 전격 해부하면서 오로지 치킨을 먹으러 제주도로 떠난 사연이 공개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올`리브
17일(토)	12:10 국악한마당 13:00 동물의 왕국 14:00 헬로카봇 2 14:30 두리둥실 뭉게공항 3 15:00 2015 K리그 클래식 17:10 아이디어 대한민국 나는 농부다 18:15 동행 19:10 다큐 공감 20:00 이어령의 백년서재 21:00 KBS 뉴스 9 21:40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22:50 KBS대토론 청년경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24:30 콘서트 7080	11:30 TOP 밴드 3 12:40 개그 콘서트 (재) 14:15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15:40 슈퍼맨이 돌아왔다 18: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연예가 중계 22:3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24:00 발칙하게 고고	12:00 MBC 뉴스 12:10 무한도전 스페셜 13:35 화려한 유혹 (재) 15:40 MBC 뉴스 15:50 쇼! 음악중심 17:00 우리 결혼했어요 18:25 무한도전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24:45 MBC스포츠 2015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골프	12:00 SBS 뉴스 12:10 육룡이 나르샤 (재) 14:30 애인 있어요 15:40 SBS 뉴스 15:50 런닝맨 (재) 17:00 오!마이 베이비 18:25 질주본능 더 레이서 20:00 SBS 8 뉴스 20: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00 애인 있어요 23:10 그것이 알고 싶다 24:15 더 랠리스트	10:10 디데이 (재) 11:30 비정상회담 (재) 13:00 JTBC 뉴스 13:20 썰전 스페셜 (재) 14:4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6:05 비정상회담 (재) 17:40 히든싱어 4 스페셜 19:40 JTBC 뉴스룸 20:30 디데이 21: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3:00 히든싱어 4	10:00 아침엔 매일경제 11: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5:30 엄지의 제왕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알토란 (재) 19:40 MBN 뉴스 8 20:3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21: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3:00 속풀이쇼 동치미 24:50 천기누설 스페셜 (재)	11:50 두번째 스무살 (재) 13:1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5:00 수요미식회 (재) 16:20 젠틀맨리그 (재) 17: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9:10 두번째 스무살 (재) 21:40 SNL 코리아 시즌6 23: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1:00 오늘 뭐 먹지? 12:00 2015 테이스티로드 13:00 비법 14:10 올리브쇼 2015 15:20 오늘 뭐 먹지? 16:20 2015 테이스티로드 17:20 살아보니 어때? 18:20 올리브쇼 2015 19:30 집밥 백선생 21:00 2015 테이스티로드 22:00 비법 23:20 오늘 뭐 먹지? 24:20 2015 테이스티로드
18일(일)	12:10 전국노래자랑 13:2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14:20 나눌수록 맛있는 행복, 푸드뱅크 15:10 제96회 전국체육대회 하이라이트 16:05 특별기획 코리언 지오그래픽 (재) 17:10 미디어 인사이드 17:40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열린음악회 19:10 도전 골든벨 20:00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21:00 KBS 뉴스 9 21:40 역사저널 그날 22:30 취재파일 K 23:10 KBS대토론 청년경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10:30 출발 드림팀 시즌2 11:40 해피 투게더 스페셜 13: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14:25 부탁해요, 엄마 (재) 16:50 해피선데이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개그 콘서트 22:55 다큐멘터리 3일 23:55 어송포유 24:50 글로벌대기획 요리인류 (재)	10:30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1:45 MBC 뉴스 11:55 출발! 비디오 여행 13:00 그녀는 예뻤다 (재) 14:00 MBC스포츠 2015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골프 16:00 섹션 TV 연예통신 16: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시사매거진 2580 24:05 세바퀴 스페셜	09:30 TV 동물농장 10:5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재) 12:00 SBS 뉴스 12:40 SBS 인기가요 13:50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미정:NC, 마산생중계 / (2안) 17:30 주먹쥐고 소림사(재)/(2안) 18:10 일요일이 좋다–런닝맨/(2안) 20:00 SBS 8 뉴스 20: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00 애인 있어요 23:10 SBS 스페셜 24:10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ONE K 콘서트	11: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3:00 JTBC 뉴스 13: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45 비정상회담 (재) 16:20 히든싱어 4 (재) 18:20 김제동의 톡투유 (재) 19:40 JTBC 뉴스룸 20: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21:40 김제동의 톡투유 23: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4:00 히든싱어 4 (재)	10:00 MBN 뉴스와이드 2부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5:50 아궁이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엄지의 제왕 (재) 19:40 MBN 뉴스 8 20:3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1:40 천기누설 23:00 알토란 24:40 아궁이 (재)	12:30 SNL 코리아 시즌6 (재) 14:20 두번째 스무살 (재) 17:00 집밥 백선생 (재) 18:20 수요미식회 (재) 19:40 코미디 빅리그 21:30 곽승준의 쿨까당 22:50 문제적 남자 24:20 처용 2 (재)	11:00 2015 테이스티로드 12:00 비법 13:20 오늘 뭐 먹지? 14:20 2015 테이스티로드 15:20 처음이라서 16:20 레이먼킴의 옥상캠핑 16:50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18:10 살아보니 어때? 19:10 올리브쇼 2015 20:30 비법 22:00 올리브쇼 2015 23:00 오늘 뭐 먹지? 24:00 2015 테이스티로드

스웨덴 축구대표, 국가 불러 '골드 레코드'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스포츠 주간 해프닝

스웨덴 최고의 골잡이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파리 생제르맹·34)가 '인기 가수'로 인정받았다.

이브라히모비치는 13일(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내가 부른 스웨덴 애국가의 스트리밍 횟수가 300만 건을 넘으면서 '골드 레코드 어워드'를 받았다. 스웨덴 애국가 역대 최고 스트리밍 횟수라고 한다. 아주 기분이 좋다"라고 밝혔다. 글과 함께 자신이 스웨덴 애국가인 '두 감라, 두 프리아(Du Gamla, Du Fria)'를 피처링할 때 모습이 담긴 황금색 액자를 든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광고의 일환으로 스웨덴 애국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스웨덴 애국가의 선율이 흐르면 차분한 목소리로 래퍼처럼 가사를 읊조렸다.

①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②11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15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준PO) 2차전 두산 베어스 대 넥센 히어로즈 경기. 8회초 넥센 공격 1사 1, 2루 때 희생번트를 친 서건창과 오재원의 언쟁으로 벤치클리어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③2015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셋째 날인 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 1번홀 그린에서 미국팀 필 미켈슨이 퍼팅에 실패한 뒤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AFP 연합뉴스·연합뉴스

가을 야구 향한 신경전

준플레이오프 2차전이 열린 11일 잠실구장 그라운드는 뜨거웠다. 8회초 무사 1, 2루에서 넥센 서건창이 3루쪽으로 희생번트를 댔다. 서건창은 전력 질주했고, 두산 2루수 오재원은 1루 베이스를 커버했다. 오재원이 뒷발을 뻗으면서 서건창은 위협을 느꼈다. 이에 서건창이 불만을 표했고, 오재원은 더 큰 동작을 취하며 맞섰다.

충돌 직전 양팀 선수들이 더그아웃에서 뛰쳐나와 1루 베이스 근처에 모여 설전을 벌였다. '벤치클리어링'이 일어난 것이다. 양팀 선수들이 두 사람을 만류한 탓에 다행히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앙금은 남은 듯했다.

염경엽 감독은 "두산에서 우리 선수들을 계속 자극한다"고 운을 떼고는 "야구를 좀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라고 여운을 남겼다.

김태형 감독이 진화에 나섰다. 김 감독은 "(오재원과 서건창 모두) 서로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며 "큰 경기를 치르다 보면 선수들이 다소 예민해질 수 있다. 선수들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다.

반칙으로 망신당한 베테랑

프레지던츠컵 최다 출전자 베테랑 필 미컬슨(45)이 '반칙'으로 망신을 산데다 팀 승리마저 날렸다.

미컬슨은 지난 9일 열린 대회 둘째날 포볼 경기에서 잭 존슨(41)과 짝을 이뤄 미컬슨은 인터내셔널팀 에이스 제이슨 데이와 애덤 스콧에 맞섰다.

1라운드 포볼 경기에서 신기의 벙커샷을 성공시키는 등 맹활약을 펼친 끝에 승점 1점을 따낸 미컬슨은 이날도 2번홀(파4) 버디로 기선을 제압하는 등 신바람을 냈다.

그러나 미컬슨은 7번홀(파5)에서 티샷을 치면서 이날 쓰던 공과 다른 공을 사용했다. 이는 동일 제조사, 동일 모델의 공으로 경기를 끝까지 치러야 한다는 '원볼(one ball)' 규정을 어긴 것이다.

미컬슨은 이 대회에서 '원볼' 규정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기위원회는 이에 '1홀 패배 추가'라는 페널티를 부과했다.

미컬슨과 존슨은 데이-스콧을 1홀차로 앞선 채 18번홀을 마쳤지만 페널티로 부과된 1홀 패배 탓에 경기는 무승부로 처리됐다. 프레지던츠컵 1회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11회 연속 출전한 유일한 선수인 베테랑답지 않은 어이없는 실수였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NC 김경문 "모든 준비 끝났다"

정규시즌 2위로 첫 PO '막상막하' 두산과 대결

두산 베어스와 플레이오프에서 맞대결하게 된 NC 다이노스의 김경문 감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준비했다"며 각오를 전했다.

김 감독은 14일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두산이 넥센 히어로즈를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하자 NC 구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NC는 정규시즌을 2위로 마치며 플레이오프에 직행했다. 준플레이오프가 열리는 동안 자체 평가전과 훈련을 하며 두 번째 가을야구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처음 가을야구에 나선 NC는 준플레이오프에서 LG 트윈스를 만나 1승 3패로 물러나며 가을야구를 마감했다. 올해는 정규시즌 2위를 차지하면서 처음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됐다.

NC 다이노스의 김경문 감독. /연합뉴스

김 감독은 "정규시즌 이후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했다. 지난해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 기간에 누가 올라오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가을축제답게 선수들과 마음껏 뛸 수 있게 하겠다"며 여유도 보였다.

두산과 NC의 플레이오프 1차전은 18일 오후 2시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다.

/장병호 기자

추신수 홈런 쳤는데… 텍사스 ALDS 탈락

포스트시즌 2호 쐈지만 역전패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미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서 통산 두 번째 홈런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텍사스는 3연속 실책으로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추신수는 14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끝난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5전3승제) 최종 5차전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했다. 1-0으로 앞선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그러나 텍사스는 3-2로 앞선 7회 연속 3개의 실책으로 무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이어 토론토 주포 호세 바티스타에게 역전 결승 3점 홈런을 내주는 등 4점을 헌납하고 3-6으로 패했다. 4년 만에 리그 서부지구 챔프에 오른 텍사스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한 여정을 아쉽게 멈췄다.

추신수는 이번 포스트시즌 5경기에서 타율 0.238(21타수 5안타), 홈런 1개, 2타점, 4득점을 올렸다. 포스트시즌 통산 성적은 타율 0.250(24타수 6안타), 홈런 2개, 3타점, 6득점이다.

토론토는 16일부터 또 다른 ALDS인 캔자스시티 로열스-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승자와 ALCS에서 리그 우승을 놓고 격돌한다.

/장병호 기자 solanin@

K리그 '스플릿 라운드' 시작

A그룹, AFC 출전 치열한 접전

2015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의 우승팀과 강등팀을 결정하는 상·하위 스플릿 라운드(34~38라운드)가 17일부터 열전에 들어간다.

스플릿 라운드에서는 K리그 12개 팀이 33라운드까지 치러 상위 6개팀이 A그룹(상위 스플릿), 하위 6개팀이 B그룹(하위 스플릿)으로 나뉘어 다섯 라운드를 더 치른다.

A그룹에서는 우승팀과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팀(3.5장)이 정해진다. B그룹에서는 내년 챌린지(2부리그)로 즉시 떨어지는 '꼴찌'와 챌린지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팀과 클래식 잔류를 놓고 싸울 11위가 결정된다.

'절대 1강' 전북 현대와 3위 포항 스틸러스는 17일 오후 3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맞대결한다. 조기 우승을 노리는 전북은 이번에 포항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 포항도 내년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위해 승리가 절실하다.

하위 스플릿에서는 챌린지 플레이오프 진출팀과 맞붙어 1부 리그 잔류를 결정해야 하는 11위팀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공교롭게도 현재 10위와 11위를 달리고 있는 광주와 부산이 17일 오후 2시 부산 아시아드경기장에서 맞붙는다.

2015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1위로 상위 스플릿 라운드에 진출한 전북 현대 선수들. /연합뉴스

부산이 이번 경기에서 광주에 패하면 11위가 사실상 결정된다. 부산으로서는 1부리그 잔류의 실낱같은 희망을 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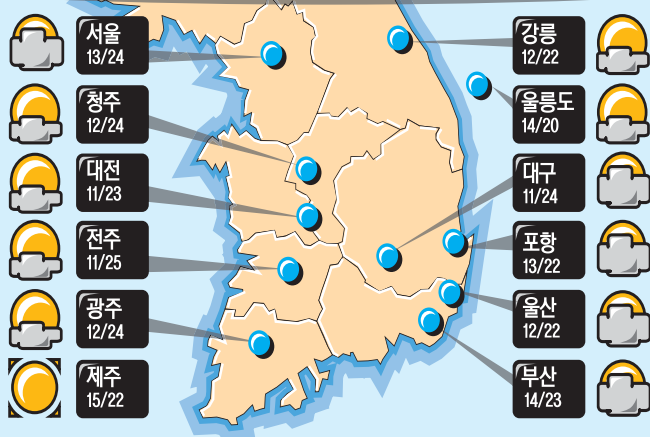
/장병호 기자

날씨

10/16 금 일출시각 06:40 일몰시각 17:5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4		1	2	5		
	8	1						
5			9	6		2		
							6	5
4		5				8		3
9	7							
		6		4	9			1
						6	8	
		9	6	7		3	5	

					7		8	3
		6	2		8			
3	2		4	1				
					4	9	6	2
	6						5	
4	5	2	8					
				8	1		7	6
			3		9	8		
7	8		6					

스도쿠 정답

6	9	4	8	1	2	5	3	7
2	8	1	7	5	3	4	9	6
5	3	7	9	6	4	2	1	8
3	1	2	4	8	7	9	6	5
4	6	5	2	9	1	8	7	3
9	7	8	5	3	6	1	4	2
8	5	6	3	4	9	7	2	1
7	4	3	1	2	5	6	8	9
1	2	9	6	7	8	3	5	4

5	4	1	9	6	7	2	8	3
9	7	6	2	3	8	1	4	5
3	2	8	4	1	5	6	9	7
8	3	7	1	5	4	9	6	2
1	6	9	7	2	3	4	5	8
4	5	2	8	9	6	7	3	1
2	9	4	5	8	1	3	7	6
6	1	5	3	7	9	8	2	4
7	8	3	6	4	2	5	1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 don't like presentations

A: What are you doing?

B: I am working on my presentation.

A: Oh, I don't like presentations. I get nervous.

B: You don't look nervous. You are good at public speaking.

A: Well, my boss makes me do that. He doesn't do his work.

B: I see.

저는 프레젠테이션이 싫어요

A: 뭐 해요?

B: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이에요.

A: 아, 저는 프레젠테이션이 싫어요. 긴장하게 된거든요.

B: 당신은 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대중 연설을 잘 하시잖아요.

A: 글쎄요, 제 상사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분은 자기 일을 안 해요.

B: 알겠어요.

문법Point

현재 시제 일반동사의 부정문은 동사 앞에 do/does not을 붙여 만든다.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에서 does를 붙여 부정형을 만들 때는 동사에 이중으로 -s를 붙이지 않는다.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 와야 한다.

ex) She does not drinks beer. (×)

Words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 발표

public speaking 대중 연설

* My boss makes me do that. 제 상사가 제게 그 일을 시켜요.
– make는 사역동사로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뜻이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원양어선을 타려는데 괜찮을까요? 선원생활에 손색이 없습니다

마도로스 남자 76년 8월 30일 양력 23시 40분경

Q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세 된 남자입니다. 생일은 양력 8월 30일생입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의 남의 가게에서 일을 봐주면서 살아 왔는데 어머니의 권고로 일찍 결혼을 하였으나 5년 전에 마누라의 의부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돈도 벌어 놓은 게 없고 변변한 직장이나 가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 재혼하기도 힘이 듭니다. 요즘 선원의 원양어선 기피 현상 등으로 말미암아 법에 정해진 필수승선인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항하는 선박이 많다고 해 공개채용 광고를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선원 생활을 해도 괜찮을까요?

A 다양화되고 복잡다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는데 사람이 적성(適性: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소질)에 맞는 직업을 갖는 다면 일의 능률이 높아지며 오랫동안 그 직업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적성과 직업을 알 수가 있는데 귀하는 생일지(生日支)에 정록(正祿)으로 자립심이 강하고 주관이 확고하여 사사로이 행하지 않으므로 부정과 타협하지 않다보니 고립을 자초하는 요인이 됩니다. '대들보가 되는 나무'의 형상으로 고위직에도 오를 수가 있으나 월일(月日)이 충돌되면서 사주의 그릇인 격(格)이 깨져서 사기그릇에 이빨이 나간 셈이라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깨졌지만 그래도 사기그릇이라 남에게 예속되기를 거부하는 기질이 있는데 그럴수록 소리는 더욱 커지니 작은 일도 크게 거꾸러지고 재혼을 해도 다시 헤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 본다면 생일이 간여지동(干與支同:사주의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부부는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격이니 실패를 보고 충살이 있어 다시 만나도 몇 번이고 헤어지게 되고 생일에 역마지살로 가족에 대한 애착심은 있으나 밖으로 만 나돌게 되므로 부모형제를 떠나 타향살이를 하는 유형입니다.

사주구조에 식신(食神:내가 생해주는 오행)이 많이 있으니 키가 크고 외모가 미남형이십니다. 편관격(偏官格: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직업)에 갑목(甲木) 사주가 성미가 날카롭고 직장생활을 하기 힘이 들므로 남다른 특이한 직업을 갖는 것이 신상에도 좋은데 천만다행으로 마도로스는 바다 생활이니 선원생활로 손색이 없습니다. 노후를 생각하고 건강하지만 위산과다에 위장병 음주를 유의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16일 (음 9월 4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한군데를 막아도 다른 곳이 터집니다. **60년생** 사고 위험이 있으니 외출은 삼가하세요. **72년생**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84년생** 예기치 않은 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49년생 뭉치면 좋고 흩어지면 어렵습니다. **61년생** 리더쉽을 가지고 주위를 잘 이끌게 됩니다. **73년생** 친절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85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하면 이루어집니다.

50년생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니 답답합니다. **62년생**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74년생** 정신적 여유를 위해 돈 쓸 때도 필요합니다. **86년생**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51년생 고의든 타의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63년생** 참지 않는 자에게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75년생** 말만 무성하고 결과가 안나옵니다. **87년생** 본인 감정보다는 배려하는 게 좋습니다.

52년생 도와주어야 할 곳은 많고 실속은 없습니다. **64년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하루입니다. **76년생**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53년생 이득보다는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길합니다. **65년생** 신중하게 판단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77년생** 남에게 도움을 주는 하루입니다. **89년생** 받기 보다는 베푸는 게 좋습니다.

54년생 동업자를 만나 일이 순조롭습니다. **66년생** 부동산이나 금전문제 주의하세요. **78년생**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90년생** 순간적인 기지로 어려움을 쉽게 벗어납니다.

55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67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는 게 이득입니다. **79년생**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91년생** 소신 있게 추진하면 끝내 이룰 수 있습니다.

56년생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68년생** 주위가 합심하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80년생** 뜻하던 것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92년생** 노력에 대한 과실이 매우 달콤합니다.

57년생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6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지만 바라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81년생** 모든 것이 길하니 운이 좋습니다. **93년생** 운도 훤하고 마음도 훤합니다.

58년생 인연운이 있으니 낯선 이를 만나도 즐겁습니다. **70년생** 변화를 모색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82년생** 작은 이익을 양보하면 더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94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세요.

59년생 주위의 말보다는 소신을 지키세요. **71년생** 주위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83년생** 자신감이 충만하니 기운도 충만합니다. **95년생** 주위의 시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30년 디젤차는 존재할까

김필수의 차 이야기

폭스바겐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디젤엔진 기술을 지니고 있는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한 무리수를 두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폭스바겐만의 사태가 아닌 디젤차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부분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벤츠나 혼다 등 다른 메이커의 디젤차도 운행 중 질소산화물 등 유해 물질이 몇 배 이상 규정치보다 높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디젤차에 대한 문제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약 130년간 내연기관차를 이끌어온 가솔린과 디젤의 균형이 깨지는 현장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디젤이라는 연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지저분한 연료인 만큼 엔진이나 각종 배기 후 처리장치를 통하여 걸러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배출되는 한계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장치가 개발되어 장착되어도 노후된 중고차의 경우 장치의 기능이나 수명이 다하게 되면 바로 배출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분명히 디젤차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달리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향후의 전망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인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선호 현상에서도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입차의 절대 선호 부분에서 디젤차는 한계가 나타나면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소형 디젤엔진 적용부터 시작해 중대형 디젤엔진으로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도 고민은 많아질 것이다. 중요한 전략 수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시장을 노크하던 유럽기반의 디젤차도 한풀 꺾이면서 방향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위상 추락과 함께 세계 글로벌 메이커의 합종연횡이 시작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의 디젤차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보면서 몇 가지 측면을 집중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폭스바겐 사태가 조기에 정리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계열사의 조기 매각과 리콜 등으로 소비자의 재신임을 받으면서 조기에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자진하여 폭스바겐 본사에서 조치하면서 이미지 추락에 대한 조기 정리를 희망하고 있으나 천문학적인 비용과 이미지 제고는 그리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폭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고 소비자의 소송 등 각종 문제점이 더욱 크게 부풀려지면 더욱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디젤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클린 디젤'에 대한 명성은 금이 갔고 허상이 되고 있으며,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 더욱 디젤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일 것이다.

과연 디젤차는 2030년에 사라질 것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130여 년간 존재한 바와 같이 석유자원이 존재하는 한 디젤차는 변화를 수용하면서 가솔린차와 더불어 살아날 것으로 판단된다.

LPG차도 다양성을 더하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면서 새로운 디젤차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디젤차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새로운 기술개발의 가능성은 가솔린차보다 디젤차가 높다고 언급하곤 한다.

환경 규제가 변수이긴 하지만 소비자는 환경보다는 연비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도 디젤차에 대한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배출가스 측면에서 매연 등 디젤차의 악조건도 크지만 이산화탄소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되는 등 상대적 강점도 있다는 것이다. 디젤차가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현 사태가 지난 자동차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변화와 격랑 속에서 제대로 대처하면서 미래를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실시간적인 시각으로 철저한 분석력과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디스플레이 코리아' OLED에 승부걸어야

기자 수첩

조한진 <산업부 기자>

"LCD(액정표시장치)는 이제 중국과 기술격차가 거의없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최근 만난 디스플레이 전문가 입에서 나온 말이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한국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했다. LCD의 경쟁력이 밑바탕이 됐다. 그러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LCD 시장은 점차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차이도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최근 중국은 LCD에 이어 OLED 시장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실제 BOE와 에버디스플레이가 내년 상반기에 OLED 생산라인을 증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플렉서블 등 중소형 OLED 제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한국이 글로벌 OLED 시장을 이끌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패널 분야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는 TV용 등 대형적 OLED 패널을 양산하는 유일한 제조사다.

자발광이 가능하고, 화질과 유연성 등에서 LCD에 우위를 보이는 OLED 패널은 프리미엄 정보기술(IT)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자동차 전장용품에도 OLED가 적용되고 있다. 향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도 OLED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LCD와 OLED는 상황이 다르다며 낙관론을 펴고 있다. OLED는 화학·재료 등의 역량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이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아직까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추격에 고삐를 당기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과거 중국은 대만·일본 등에서 연구 인력을 흡수하며 빠르게 LCD 제조 경쟁력을 끌어 올렸다. 중국업체들이 OLED 분야에서도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수출 효자 종목 가운데 하나다.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코리아'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OLED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연적이다. LG·삼성 디스플레이의 노력과 정부의 효과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社說

주목되는 금융감독원의 움직임

금융감독원이 요즘 상당히 바쁘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시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번주 들어 발표한 주요 정책만 봐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난 11일 금융사의 허위과장광고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고, 12일에는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고 연 8%까지 지연이자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도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은 정쟁으로 요란하고 세상은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시끄럽지만, 이런 가운데 필요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치하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이들 정책이 모두 소비자들의 오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들의 '꼼수영업'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권익을 침해당해 왔다. 이런 침해사항을 찾아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다소 늦은 듯하지만 평가 받아 마땅한 일이다.

금융감독원의 이런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사의 영업 풍토와 관행도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의 조치들이 금융사에게 다소 불편하고 까다롭게 여겨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편하게만 영업하다가 어려운 규제들이 새로 부과되니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금융사 경쟁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가면서 영업하고 이익을 낼 경우 그런 이익이 확실한 이익이요 진정한 영업력이다. 엄격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군인이 정예병사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화장품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많은 소비재는 소비자의 까다로운 기호와 엄격한 규제에 맞춰 생산된 결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사들이 쉽게 꼼수로 영업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금융사들도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하면서 영업하는 것이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정정당당한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짜 홍삼제품 가려내는 판별법 개발

소비자 119

더덕이나 도라지, 칡을 섞어 만든 가짜 인삼·홍삼 제품을 가려내는 판별법이 개발됐다.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재료를 넣고 인삼·홍삼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짜 인삼이나 홍삼 제품을 가려낼 수 있는 판별법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인삼·홍삼 제품에 사포닌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이를 판별했다. 하지만 인삼·홍삼에 더덕·도라지 등을 혼합해 만든 경우 정확한 판별이 어려웠다. 이번에 김경수 조선대 교수와 전향숙 중앙대 교수팀이 새로 개발한 판별법은 인삼·홍삼 제품에서 더덕, 도라지, 칡의 지표성분을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만약 더덕과 도라지에 들어있는 지표성분인 '로베티올린(Lobetyolin)'이 인삼·홍삼 제품에서 검출되면 값싼 재료를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칡의 경우 '오노닌(Ononin)'이 검출된다. 원칙적으로는 인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만이 나와야 한다.

이 판별법을 활용하면 더덕, 도라지, 칡 3가지 중 어느 하나가 섞여있는 가짜 인삼이나 홍삼 제품을 100%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판별법이 인삼 또는 홍삼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 진위 판별법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인사

◇한겨레신문 ▷김난희 경영지원실 테마여행팀장 ▷서정민 편집국 라이프데스크 겸 ESC팀장
◇퀄컴코리아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코리아 오퍼레이션 부문 사장 김종하 ▷퀄컴코리아 R&D 센터 겸 코퍼레이트 부문 사장 이태원
◇행정자치부 △과장급 전보 ▷창조정부조직실 행정정보공유과장 서기관 이희열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서기관 장한 ▷전자정부국 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 기술서기관 하승철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서기관 조성환 ▷전자정부국 개인정보안전과장 서기관 마용현 ▷전자정부국 지역금융지원과장 서기관 이방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 신진수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100%
부드러운 17.5도
가을을 물들이는
부드러운 한 잔
부드러운 소주의 처음, 처음처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